

정 하 이 무 상 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35호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칭하이 무상사 / 1999. 10. 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서 이 자리를 떠나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니, 왜?”라고 하자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더 있다가는 모두들 우리가 저 그림들을 그릴 줄 알겠어요!” ♥



비명을 지르는 까닭은?

칭하이 무상사 / 1999. 10.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하루는 한 음악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일류 오페라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지휘자가 저 여자에게 막대기를 계속 휘두르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때리는 게 아니니 마음 놓으렴!”

“그런데 왜 저렇게 비명을 지르나요?” ♥



확실한 알리바이

칭하이 무상사 / 1999. 10.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오페라 가수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노래할 때마다 발코니로 나가는 거예요? 내 노랫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니란 걸 보여 주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야.” ♥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함께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35/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35/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35/jk1.htm> (미국)

앞표지 안/ 스승님의 농담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 비명을 지르는 까닭은? / 확실한 알리바이

2/ 27 스승님 말씀

스승의 일을 하는 바람직한 태도 /
갈망은 신의 왕국으로 통하는 열쇠

3 지혜어록

고등의 변신술

4 다채로운 이벤트

스웨덴 / 호주 / 미국 / 캐나다 / 브라질 / 일본 / 포모사

12/ 43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 DVD

13 수행의 길목에서

금은 어떻게 제련되는가 / 만사여의(萬事如意)

1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도(道)가 최고다 / 입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21 골라 뽑은 수행문답

입문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 진정한 입문

24 신기한 감응

스승님을 만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 /
재난은 무정하나 부처는 자비롭다 / 사랑의 힘

25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29 수행일화

부정적인 상황의 긍정적인 의미 / 장애를 이점으로! / 인자무적(仁者無敵)

31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용감하고 정직한 모범이 되라

34 동물의 유정(有情) 세계

사랑의 교훈 / 물고기를 기르며 /
사랑의 선물 - 도마뱀붙이 이야기 / 훌륭한 '검둥이'

40 스승과 제자 사이

깊은 물을 건너듯, 살얼음을 디디듯 /
스승님의 가늠할 길 없는 능력 / 인삼의 교훈

44 사랑의 실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포모사 /
2002년 3월에서 4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내역

47 감사 편지

뉴욕 소방서 911 순직자 가족이 보내 온 편지 /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의 감사 편지

49 관음 웹사이트

50 전 세계 연락처

56 불멸의 시

잃어버린 기억

뒷표지 안/ 시

6월의 미풍 속에

뒷표지/ 무상 예술

천의(天衣) 여름 시리즈 - 신(新) 낭만주의 린넨 디자인



수행의 공덕과 복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의 그 무엇과도
그것을 바꾸어선 안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5호

출판일자 : 2002. 11. 22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7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
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
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스승의 일을 하는 바람직한 태도

청하이 무상사/ 1989. 2. 13-18. 포모사 시후 선철
(원문 중국어) MP3-4

이곳에 수행하러 와서 자신의 공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서로의 수행을 돕고 있으므로 공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한번도 강연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거나 나를 도와 뭔가를 하지도 않았고 한 푼이라도 공양한 적이 없는 동수라 해도 이미 스승을 많이 돕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온 것으로 이미 도운 것이며, 수행하고 있는 자체가 도움입니다. 나를 믿는 것 또한 도움이며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계율을 지키고 채식을 하고 자신의 친구의를 깨끗이 유지하는 것 또한 큰 도움입니다.

그 외에 달리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 공덕은 여러분이 받으니,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포스터를 좀 붙였다면,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덕은 이미 쌓은 것입니다. 나를 돕는 것은 일의 성공, 실패를 떠나서 모두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요.

내 일을 많이 도울수록 공덕 또한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공로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형을 받아 여기 내려오기도 하는데, 공덕을 많이 쌓지 못하면 나중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 백마의 경우 삼장법사를 도와 불경을 구하는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일을 돕는 게 자신의 공덕인지 업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대신 말하지는 마십시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사오정과 저팔계처럼 여러분의 업장 때문에 스승의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태는 더 악화되지요! 그들이 여러분의 공로도 인정하지 않고 게다가 여러분에게 업장이 있어서라고 말해, 속이 상할 테니까요! 그러니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할 때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하십시오. 입 밖으로 나온 다음 순간 마장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도 이미 겪어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선 행사나 단체명상 중에 체험을 발표하게 합니다. 내가 허락해서 내 앞에서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중에 내 허락도 없이 그저 기쁜 마음에 발설해 버립니다. “그날, 스승님께서 내가 이리이러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다보면 스스로 대단하게 느낄 것이고 얼마 안 있어 마장에 들 겁니다.

여러분을 질책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단지 일깨워 주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자만’은 우리에게 문젯거리를 안겨 주며, 이 교만의 마या가 슬며시 나타나면 정말 골치 아파지지요! 어떤 이는 낮은 경지로 떨어지거나 발로 걷어차여 쫓겨났다 가 나중에야 고통을 느끼지만 돌이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아마 업장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을 때에만 체험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허락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받

을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우리 체험이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봐요, 최근에는 어디까지 진보했지요? 좀 말해도 괜찮잖아요? 정말 존경스럽군요!” 그러면서 기대에 차 눈을 크게 뜹니다. (대중 웃음) 세상에, 그럼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말할수록 문젯거리는 더 많아지겠지요!

또 그들이 우리 말에 적극 찬성하는 바람에 우리는 온갖 요괴라도 무찌를 수 있을 것마냥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이 힘을 잃게 되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찬탄하니 그들의 상상력에 맞춰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원래부터 그런 힘이 없었다거나 아직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칭찬하면, 우린 창피함에 고개를 못 들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지는 앓을 곳도 없는 공중에 봉 뜨게 되어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애

입니다!

공덕을 짓는 것 역시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들이 자연스레 아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스스로 말을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너무도 많이 봤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태도를 참회하고 바꾸십시오. ♥

고등의 변신술

청하이 무상사/ 1995. 7. 11.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 No. 488

흥미롭게도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외형이 변하기도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마르고, 깡마른 사람들은 둥글게 변하지요.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보다 충실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입문 직후 일어나기도 해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나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죠! 입문하고 나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오랜 친구 같았지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스승님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까? 바로 며칠 전에 스승님께 인사드렸는데,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내 기억 속엔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신체 내의 화학 물질도 변하고 신체 조직과 세포도 새

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고 구조도 다르게 변합니다. 비록 사용할 기회가 없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또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기면

하룻밤 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솟아 나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

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변화를 알게 되지요. ♥



스톡홀름의 탄생 기념 축제

[스톡홀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올해로 탄생 750주년을 맞아 2002년 6월 1일부터 8일까지 도시 곳곳에서 이 역사적인 기념일을 경축하는 즐거운 야외 경축행사들을 개최했다. 행사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

우리는 세계촌이라고 불리는 링커비(Rinkeby) 구역에 관음 부스를 설치하고 전세계에서 찾아온 행인들을 맞이했다. 또 신실한 구도자들을 위해 아랍어에서 우크라이나어까지 25개 국어로 된 견본책자를 준비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설치해 방문객의 모국어에 따라 바로 자막이 바뀌도록 프로그램하여 스승님의 강연 DVD를 방영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음악가인 한 사형이 행사의 일환으로 이틀 간의 멋진 기타 공연을 선보였다.

많은 방문객들이 관음법문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센터의 주소를 물

스웨덴 소식

었으며, 세상 사람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스승님의 전세계적인 박애주의 활동에 큰 감탄을 나타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우정과 화합의 스톡홀름 축제는 서서히 막을 내렸고,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은 가슴속에 잔잔히 퍼지는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간직한 채 우리 부스를 떠났다. 한 쿠르드 노인인 우리 부스에서 스승님의 지혜를 한껏 즐긴 후 이렇게 말을 맺었다. “참으로 명상만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길이군요!” ♥

브리즈번 ‘육체 · 마음 · 영혼의 축제’

[브리즈번] 2002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간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육체 · 마음 · 영혼의 축제’ 연례 행사에 브리즈번 센터는 올해도 어김없이 참가했다. 올해 이 행사에서는 백 군데가 넘는 전시 부스들이 이완 및 명상기법, 소리요법, 요가, 풍수, 채식요리 시연 등 다양한 범주의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주최측의 추산으로는 이 사흘 간의 행사에 1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브리즈번 동수들이 부스에서 방문객들의 질문에 답해 주는 등 바쁘게 활동해 준비한 견본책자와 전단지까지 거의 다 배포되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관음법문에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브리즈번 센터를 방문할 의향을 나타냈다. 방문객들은 우리가 이 행사에 참가한 목적이 단순히 관음법문 수행의 기쁨과 이로움을 대중들과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과 무료로 이 법문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선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존경과 감탄을 나타냈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친구들을 불러 견본책자를 가져가도록 재촉하기도 했다.

호주 소식



방문객들의 신실함에 큰 힘을 얻은 동수들은 관음법문을 전하는 자체가 우리의 수행 진보를 돕는 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석가탄신일에 진리를 나누다

[상파울로] 2002년 5월 26일 6천여 명의 브라질 국민들이 2546년 석가탄신일을 경축하기 위해 이비라푸에라 공원에 운집했다.

상파울로의 불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평화의 날’이었던 이날, 브라질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날을 경축했고, 상파울로 동수들도 즉각 작업 팀을 조직해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걸고 관음 홍법 차량에 ‘I will forever love you’를 계속 틀면서 차량 근처에서 3천 장이 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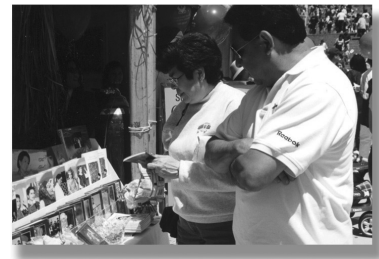


‘LA 타임스 책 축제’에서 진선미의 가르침을 선보이다

[로스앤젤레스] 2002년 4월 27일과 28일 주말, 제7회 연례 ‘LA 타임스 책 축제’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미국 최대 규모의 문예 행사로 올해는 15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LA 센터 동수들도 올해 행사에 참여해 부스를 마련하고 스승님의 가르침과 인도주의적 업적, 예술적 재능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었다. 우리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시물은 수많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선 부스 전면에는 스승님의 간행물을 독특하게 전시했으며, 부스 왼쪽에는 전세계적인 자선활동 사진을 확대해 대형 패널 3개에 전시해 놓았다. 이 사진을 본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자비와 박애 정신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나타냈다. 부스 중앙에 진열된 스승님의 그림과 의상 디자인에 관한 책들을 본 방문객들은 예술가로서의 스승님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독창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부스 오른쪽에는 스승님의 그림과 만세등을 전시했는데, 만세등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등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수행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은 기쁜 마음으로 진열된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가져갔으며, 신실한 구도자들은 칭하이 무상사 약력 소개 비디오 테이프인 ‘사랑의 길을 걷자’와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구하고 매우 기뻐했다. 또 우리 부스에서 상영하는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 콘서트와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에 끌려 찾아오는 참관객들도 많았다. 그 중 몇몇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지역 TV 채널 KSCI 프로그램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을 시청하고 있는 까닭에 바로 스승님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또 보다 건강하고 자비로운 생활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 전 제작한 채식요리 비디오 테이프 '채식요리 예술-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요리법'을 찾기도 했다. LA 센터의 이번 축제 참가로 더 많은 구도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스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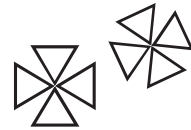
의 축복으로 더 많은 빛과 사랑이 이 세상에 계속 퍼져 나갈 것이다. ♥

다문화 지구의 날

[산호세] 2002년 4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산호세 채식의 집은 산호세 히스패닉 지역에서 열린 다문화 지구의 날 개막식에 초대받았다. 이 활동은 이 지역에서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채식의 집은 2개의 부스를 얻었는데, 하나는 채식요리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 및 경서, 잡지를 진열하기 위한 것이었다. 채식의 집은 행사에 참석한 유일한 채식음식 부스였으나 다른 음식 부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끌었다. 그 중에는 몇 번씩이나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TV 방송국에서 파견 나온 한 기자는 우리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재빠르게 뉴스잡지와 견본책자,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녹화했다. 그는 나중에 우리 부스에서 풍성한 채식요리를 맛보고는 굉장히 만족해하며 자리를 떠났다. 스페인어를 하는 이웃 부스의 사람들은 스페인어판 뉴스잡지와 견본책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뭇 듯이 기뻐했으며, 또한 친구들에게 줄 영문판 책자를 얻어 갔다. 우리는 채식음식을 시식한 사람들과 비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 대다수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모두들 채식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확신했다. 또 채식의 흥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



채식 흥법의 성공 - 꿈은 이루어진다

[시카고] 일리노이 동수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 시카고의 많은 대학생들이 건강에 더 유익한 음식을 먹게 되고 동물에게도 우리와 같은 생존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작년에 몇몇 한국 대학생 동수들은 '채식 도시락'을 개발해 시카고 지역 대학들을 찾아가 교내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오이와

미국 일리노이 소식

아보카도, 당근으로 만들어진 영양 많은 채식 김밥 도시락이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 여름 방학을 맞이해 이 젊은 수행자들은 지역사회 내 각계각층

의 사람들에게 채식을 보급하기 위해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정하고 스승님의 간행물과 감로법어도 전시하기로 했다.

적당한 장소가 물색된 후 스승님의 축복과 안배 속에 ‘엘리스와 친구들의 채식 카페’가 2002년 5월에 문을 열게 되었다. 달리 장식품을 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카페에는 테이블과 의자만 몇 개 놓여 있을 뿐이었지만, 동수들은 벽에 스승님의 감로법어를 표구해 장식해 놓아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그것을 읽으며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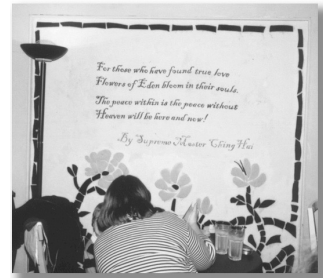
광고 비용이 없어서 카페 개업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개업 첫날엔 겨우 한 사람이 찾아왔고, 이튿날엔 두 사람이, 사흘째엔 세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흘째엔 거의 20여 명이 찾아왔고, 이제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 날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동수들은 그들의 신실한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에 매우 기뻐했다. 또 매일 일을 마친 후 함께 단체명상을 하고, 주말엔 비록 손님이 평일보다 많긴 하지만 센터의 단체명상이나 다른 주에서 열리는 선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문을 닫는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는 동안 견본책자를 뽑아 읽곤 한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이 작은 채식 카페로 인해 채식 홍법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한국 대학생 동수들이 운영하는 시카고의 ‘엘리스와 친구들의 채식 카페’.



카페 안에 감로법어를 표구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다.

몬트리올 홍법 활동

[몬트리올] 2002년 5월 19일 몬트리올 동수들은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간단한 소개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테이프 상영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가벼운 채식 다과회를 즐기며 견본책자를 나눠 주었다. 손님들은 이 행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날 스승님의 가르침과 철학에 강하게 이끌린 참석자들은 며칠 뒤 센터를 다시 방문해 방편법을 배우기도 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일부 참석자들은 아쉬움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동수들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영성 방편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



캐나다 소식



일본 소식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한 선 행사

[군마] 2001년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국제 선사가 끝난 후, 스승님은 그때까지 플로리다 센터에 남아 있던 일본 동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군마 현에 있는 스승님의 통나무집 사용을 허락해 주셨다. 이 크나큰 선물에 동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귀국하는 즉시 일본의 사형 사저들에게 이 신나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통나무집이 있는 지역은 겨울에 매우 춥고 때로는 눈이 쌓여서 텐트를 치며 선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들 봄이 오기만 기다려야 했다.

5월이 되자 그 근방의 동수들은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지만 따뜻한 햇살 아래 꽃과 나무들이 나날이 푸르러지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 왔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통나무집에서 선일을 행사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열릴 단체명상의 서막을 열었다. ♥



선 행사 소감

토타니 신야 사형/ 일본 아마나시 현

일본 동수들은 5월의 마지막 주말에 군마 현에 있는 스승님의 통나무집에서 선일을 치렀다. 당시 나는 일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다. 빵집을 새로 꾸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주말에는 TV 방송국과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다. 내가 선일 참가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방송국에서 인터뷰 일정이 바뀌었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이것이 명상에 참석하도록 안내해 주신 스승님의 사랑이란 것을 확신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선일이 있던 주말은 날씨가 화창했다. 도착했을 때 강하게 몰아치고 있던 바람도 우리가 텐트를 치는 동안엔 잠잠했다.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는 군마가 한 해 중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기인 데다가 스승님의 통나무집이 경치 좋은 별장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명상하는 동안 주위에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굉장히 조용해서 근처 개울의 잔잔한 물소리만 들렸다.

멀리 도쿄에서 온 동수들은 선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며 6시간 만에 도착했고 일부 동수들은 금요일부터 집을 나서야 하는 등 긴 여행 끝에 도착했지만, 어느 누구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만남의 즐거움을 누렸다.

비록 많은 동수들이 참가하진 못했지만, 이번 선일 행사는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장소,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국제선에 견줄 만했다. 이 모든 것은 동수들의 세심한 배려와 계획, 그리고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그 덕분에 것처럼 아름다운 장소에서 즐거운 선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명상을 마친 동수들은 얼굴 만면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가득했다.

포모사 소식

지룽 해변 청소

[지룽] 지룽 환경보호국은 5월 18일 지룽 와이무산 오우디 해변에서 ‘2002년 춘계 해변청소 자원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지룽 센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수백 명이 지원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당일 밝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포모사 환경보호국의 전문위원이 정부의 환경정책을 소개하며 환경 친화적인 1회용 식기로 대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룽 센터는 해양 보육협회의 해변 청소 참여 요청을 받아들여 당일 활동이 열린 이 오우디 해변을 맡기로 했다. 오우디 해변은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는 명소로, 특히 여름이 되면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수욕과 수상 스포츠를 즐기 위해 찾는다. 그러므로 이곳의 청결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룽 시장의 치사가 끝난 후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 사저는 이곳이 더럽다는 이유로 놀러 올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날 이곳을 말끔히 치울 기회를 갖게 되자 놀라워했다!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동수들은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활동했다. 더운 날씨에 많은 땀을 흘렸으나 해변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가자 동수들은 기쁨의 미소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



‘천국으로 가는 길’ 청소 활동

[시후] 2002년 5월 19일 시후 센터에서 선이 행사가 있던 날, 300여 명의 동수들이 오전 명상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센터 정문에 모여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을 준비했다.

동수들은 필요한 빗자루와 쓰레받기, 낫, 망치 등 각종 청소 도구들을 갖추고 옷도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목적지에 도착했다. 길을 청소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파내고 도랑을 치고 땅을 고르고 쓰레기를 치웠다. 동수들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3시간 만에 8마일의 길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 동수는 입문하기 전 미아오리 28번 국도를 처음 걸었을 때 특별한 느낌을 받았는데, 유난히 고요한 느낌 외에도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 지

역 주민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듯 보였다고 한다. 그 당시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몰랐다가 입문하고 나서야 그 답을 찾게 되었다. 미아오리 28번 국도는 우리 동수들이 맡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수년 동안 스승님이 돌보셨던 길이기 때문이었다.

많은 동수들이 단체명상이나 선이 행사를 위해 시후를 찾아올 때면



이 길을 택해 오고 싶어한다. 한 동수는 이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으면 세속의 근심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대신 길을 따라 아름다운 정경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얘기했다. 아침이나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도 이 길에선 독특한 영성의 아름다움이 발산되어 사람들의 시름을

잊게 만든다. 그래서 동수들은 이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부른다. ♥



미야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을 하는 동안 어린 동수들이 어른들과 똑같이 부지런히 청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적인 청소로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미야오리 28번 국도. 동수들이 환경 보호와 자연 사랑을 실천한 결과이다.

한의학 건강 박람회

[난토우] 포모사 난토우 충싱 지방병원은 한의학부 설립 1주년을 맞아 2002년 5월 10일 ‘한의학 건강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보건 기구 및 건강식품 제조사들이 초청되었는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또한 특별히 초대받아 ‘육체·정신·영혼의 건강’에 관한 서적들을 전시하고 채식을 무료로 제공했다.

행사 당일, 차이 위에푸 충싱 지방병원장은 박람회의 주목적이 균형 있는 식단과 ‘3저(低) 2고(高)’의 건강 개념을 보급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3저 2고’란 소금과 기름, 설탕은 낮추되 섬유질과 칼슘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유지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고 있는 최근의 채식 조리법은 이런 개념에 잘 부합되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문화를 따르던 일반인들에게 훌륭한 시범과 선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치과 주임 추 포친 박사는 인간의 치아와 소장 구조에 근거해 채식이 구강 위생과 치아 건강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채식 시식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의 채식요리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채식음식의 맛과 다양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 식생활을 바꿔 채식을 하고 싶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람회 중 열린 몇 차례의 건강 세미나 중에는 한의학부 의사인 린 밍차오 사형이 주관한 세미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린 사형은 ‘육체·정신·영혼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내인



(內因)과 외인(外因)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 내인에는 영혼의 상태 역시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생명체든 가장 기본적인 자가치유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생명체가 가장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다. 일단 이 자가 치유력이 약해지면 유기체의 심리 체계도 점차 균형과 조화를 잃어 병이 생기고 생명력이 고갈된다. 그러나 사랑과 무조건적인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우주 에너지’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보이지는 않지만 자가 치유력 역시 높아진다”고 했다. 린 박사는 인간의 의식 차원 고양이가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

신화 센터에서 열린 저널리즘 워크숍

[타이난] 2002년 5월 25일과 26일 포모사 각 센터의 뉴스그룹 동수들이 뉴스 보도 워크숍을 위해 타이난 신화 센터에 모였다. 매혹적인 경관과 타이난 동수들의 따뜻하고 정성스런 접대를 받은 동수들은 마치 최고급 호텔에 머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틀 간의 워크숍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으며, 비디오 촬영 구도, 기사 수집, 사진 촬영 및 편집 기법 등의 주요 과정이 보도 사진 촬영 및 편집 실습과 함께 진행되었다. 강사를 맡은 천 사형은 촬영 부문에서 다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아낌없이 전달했다. 그는 글과 그림으로 된 교재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기존에 편집해 놓은 필름을 가지고 시범을 보여 한층 심도 있는 이해를 도왔다.

천 사형의 상세한 설명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조별로 나눠 신화 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각자 맡은 주제로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을 마친 후에는 컴퓨터 작업을 거쳐 찍은 영상을 편집해 멋진 비디오를 제작했다. 비디오 편집 과정에서는 세심함과 집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여기에 정교한 기술과 미적 감각이 더해져야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조별로 아름답게 완성한 필름을 상영한 워크숍 마지막 시간은 모두에게 있어 가장 흥분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천 사형은 각 조의 필름을 보면서 세세하게 강평했다.

비록 워크숍은 끝났지만 즐거운 마음과 감동은 동수들의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단 이틀에 걸친 경험이었지만 모두들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각 조의 뛰어난 필름을 즐겁게 감상하다.



아름다운 경사실은 최고의 사진 촬영 장소다.



활동 소감

황 사저

나는 영광스럽게도 최근 타이난 신화 센터에서 열린 저널리즘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었다. 워크숍 등록을 마치고 난 어느 날, 꿈에서 나는 연습시간에 다른 사저와 조를 이루게 됐는데, 그녀는 내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 나 혼자서 카메라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꿈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자 정말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안배임을 믿는다. 내가 컴퓨터를 다뤄 본 적이 없어 자신감이 없다는 걸 아신 스승님은 미리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이 워크숍에서 평소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스승님이 수행을 하고 나면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신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경험은 내게 신의 전지전능한 능력 하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언제나 나를 돌봐 주시고 시험을 하나씩 거치며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 + 프랑스어 자막>

671 깨달음을 얻자

1999. 11. 21. 이스라엘 텔아비브 강연

648 전쟁을 종식하는 길

1999. 6. 5.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강연

656 영성은 역경속에 빛난다

1999. 6. 7. 아일랜드 더블린 강연



금은 어떻게 제련되는가

- 어린 시저의 수행 여정기 -

송송 시저 구술/ 서아프리카 타고
관음사자 기록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일 때문에 나는 조부모님을 비롯한 친척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 그래서 내 유년 시절은 외롭고 불안정했으며,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외국에서 살게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과묵한 성격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몰랐으며 내 방문을 잠그고 틀어박혀 있기 일췌였다.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주위 환경에 대해 이해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몰랐다.

그러나 어머니가 입문한 뒤 나는 스승님의 크나큰 축복과 동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을 열자 내 인생에 희망이 보였던 것이다. 동수들에게 스승님과 수행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면서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수행에 대한 개념이 차츰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수행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내가 동수들과 만나는 것을 반대하셨다. 한번은 아버지가 화를 내며 스승님의 법상을 부서뜨

린 적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행동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스승님께 아버지의 무지에 대해 참회드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지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요함과 평온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명상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나는 자연스레 가부좌를 하고 명상하게 되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으며, 나는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맛보았다!

그날 이후 육식을 하면 설사를 하거나 성미가 나빠졌다. 2000년 5월 어머니가 한국 국제 선삼을 마치고 돌아오시자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가득 찼고, 나는 완전 채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입문을 허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선 방법부터 수행해야 했다. 아마 그건 신의 시험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일으키는 온갖 장애들은 나의 성장을 돕는 촉진제였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종종 집을 비우셨지만 우리를 보러 자주 들르셨다. 그럴 때면 가족들은 큰 부담

을 느끼곤 했고, 특히 나의 채식과 수행 때문에 집안에 풍파가 일어났기도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행에 대한 나의 갈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채식을 하지 않으면 입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고기를 먹으려는 아버지의 강요를 뿌리쳤다. 그러자 바로 집안 내 분쟁이 일어났다. 나는 식탁에 가는 게 두려웠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계속 채식을 유지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도살될 동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비록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생각을 돌리길 원하셨지만 나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스승님께 무사히 입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드렸다. 그러면서 차례차례 난관을 헤쳐 나갔다.

마침내 참을성을 잃은 아버지는 내 뺨을 두 차례 때리셨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미움이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이 고귀한 이상을 위해 분투하려는 마음만 더욱 강해졌다. 외부의 폭력이나 압박은 육체에 고통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내 내면의 고요하고 굳은 결심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에게 뺨을 맞아 많이 아팠지만 도살당할 동물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 역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수행을 열심히 해 이런 상황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 모든 노력 끝에 마침내 나는 나의 나약함과 두꺼운 껍질에서 벗어나 내면의 갈망을 깨닫고 그것을 길으로 표현해 낼 만큼 용감해졌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내 방에 걸린 스승님 법상을 바라보면 스승님이 더 기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미소 짓는 듯했으며, 계속 용감히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게 되었다.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입문을 하게 되었다. 스승님의 이 헤아릴 길 없는 사랑으로 인해 나는 너무나 흥분되었고,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입문중에 붙이려고 준비했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입문식이 끝난 후 관음사자에게 다른 사진을 찍어 올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곤 다시 찍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동수들은 이번 사진이 훨씬 낫다고 하면서 입문 전에 찍었던 사진을 비교해 주었는데, 내가 봐도 정말 모습이 달랐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외면과 내면 양쪽으로 성형수술을 해주셨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



만사여의 (萬事如意)

씨아오위 사저/ 독일

“만사여의(萬事如意)하시길...”이란 말은 중국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인사말이다. 그러나 나는 자라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오히려 정반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심중팔구였다. 그래서 한 동안 나는 “만사여의하시길”이나 “모든 게 순조로우시길” 같은 인사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승님을 따라 수행한 후,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뤄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의 생각도 바뀌게

되었다. 아마 다른 한편으론 내가 쉽게 만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지금은 인내심이 많아 예전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스승님께서선 관음법문은 ‘장화’와 같다고 하셨다. 설령 입문 후에도 여전히 인생의 고난이 존재할지라도 장화를 신은 것처럼 관음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상처받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또 명상을 통해 우리의 무한한 지혜가 열리고, 비록 겉보기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돼도 겉면만이 아닌 사물의 또 다른 면을 통찰하게 되어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에 나에 대해 별

로 호의적이지 않은 동료 몇몇과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내 결점을 꼬집어 내어 공공연히 망신을 주곤 했다. 때로는 상사에게 나의 결점을 일러바치기도 했다. 처음에 나는 굉장히 화가 나서 말싸움을 크게 벌일까도 생각했었지만, 잠시 후 단점을 계속 반성하고 고쳐 나가는 게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령 그들의 비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태도 또한 무례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볼 좋은 기회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런 비판을 항상 기억해 나 자신에게 엄격히 대했다. 많은 동수들이 스승님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심으로써 자신이 닦여 빛이 나길 희망하는데, 사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완벽해지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면 스승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깨우침이라고 여겨야 한다.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입문하고 난 후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다. 인내심과 임기응변 능력이 늘어난 동시에 외부의 환경 역시 내 뜻대로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전에 중국 본토에 살았을 때 나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수없이 시도를 해봤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입문하고 나서는 외부의 상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 이런 노력들을 포기하고 국내 생활에 만족해하며 수행을 계속했다. 그러자 얼마 후 기적적으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아무런 장애도 없이 독일에 오게 되었다. 독일에 오고 나서도 생활과 일, 공부 등 모든 면에서 신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고 때로는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아 이게 정말 생신인지 믿어지지 않기도 한다.

스승님께 입문한 후의 내 수행을 돌이켜보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동수들의 많은 체험담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듯 느껴진다. 관음 법문을 수행하여 우리 내면의 위대한 힘과 교통하고 나서는 정말 모든 꿈들이 ‘만사여의’하게 실현된다. 스승님의 말씀처럼 말이다. “모든 것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뉴스잡지 57호 감로법어 중)

다음 시는 내가 최근에 쓴 시다.

최고의 영광

나, 이전엔 물가에 나온
목마른 작은 물고기였으나
이제는 크나큰 축복으로
당신의 사랑의 바다에서 맘껏 노닐게 되었지요
나, 이전엔 공중을 하릴없이 떠다니는
깃털이었으나
이제는 크나큰 축복으로
당신의 완벽한 날개 속 작은 깃털이 되었지요
나, 황량한 산 깊숙이 묻힌 거친 옥과 같았으나
당신의 뛰어난 솜씨로 깎여
보석으로서 매혹적인 빛을 발하게 되었지요
나, 진흙 속으로 떨어진 가랑비와 같았으나
당신의 눈부신 사랑으로
우주 끝까지 드높이 솟아 오르게 되었지요!



세상 그 무엇보다 도(道)가 최고다

청하이 무상사/ 1988. 9. 24-27. 포모사 시후 선철 (원문 중국어)

MP3-3

이 세상엔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아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해도 그렇게 못 하는 건 이 세상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보는 순간 빠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한 이들에겐 당연히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떠나기가 쉽지 않지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어떤 세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동수 중에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묘사를 듣고 나면 굉장한 힘을 느끼게 되어 우리 역시 수행해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승님, 이 가피력을 도로 가져가실 수 없나요? 선철에서 돌아온 후 큰 가피력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중 웃음) 정말 뭐라 말할 수도 없이 명칭하지 않나요? (대중: “예”) 어떤 사람들은 좀더 축복해 달라고 스승에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가피력이 너무 크다고 그걸 다시 가져가라니요! 그 가피력을 다시 수

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가피력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축복이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가져가라고 해도 난 받지 않겠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가피는 했으면 한 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되받을 게 뭐 있습니까? 소처럼 한번 풀을 삼켰다가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의 힘은 아주 귀중합니다. 아주 적은 소수만이 전해 줄 수 있지요. 온 세상과 바꾼다 해도 가질 수 없는데, 그걸 다시 가져가 달라고 하다니! 만약 내가 정말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명상을 해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겁니다. 전에는 집착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그런 고양된 체험을 한 적이 없어서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걸 체험해서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만약 내가 정말 축복을 거두어 간다면... 수행하기 전보다 훨씬 비참할 겁니다! 전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으니 그런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인도 여자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마도 그녀가 막 선철에서 돌아온 뒤였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취한 상태였지요. 차파티(얇고 둥그란 인도식 빵)를 만들 때면 항상 반쯤 만들다가 의식을 잃곤 했습니다. 육체는 남겨 둔 채 영혼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밀가루가 온몸에 묻어 몸이 하얗게 되고 바닥에는 여기저기 밀가루가 뿌려져 있고 프라이팬은 앞에, 젓가락은 뒤에 하는 식의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런 상황을 모를 수도 있겠군요.

배고픈 남편이 돌아와 보면 아내는 한쪽에 누워있고 차파티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버터는 여기에, 우유는 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계속되자 남편은 아내가 게을러 잠만 많이 잔다고 생각하고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스승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축복을 거둬 가 주세요.” 명칭하기 짝이 없는 우리 동수와 똑같군요! 그녀는 그녀의 스승에게 몇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때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온몸이 멍투성이랍니다.”

“그건 참아야 한다. 이 가피력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언제라도 삼매에 들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스승은 얘기했지요. 그녀는 내면의 소리가 아주 커서 소리가 올 때마다 영혼이 올라와 몸만 남겨 두고 가 버렸습니다. 우리 몸은 옷과 같아서 영혼이 빠져 나가면 벗어 놓고 나간 옷처럼 되지요. 그래도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집안이 시끄럽고 남편은 집에 돌아와 저를 때립니다. 그러니 축복을 도로 가져가셔야만 해요.” “좋다. 그렇게 하마.”

스승이 가피력을 가져간 후 그녀는 더욱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찾아와 울며 말했지요. “스승님, 지금은 이전보다 더 못살겠어요! 예전엔 남편이 때려도 참을만 했고 때로 삼매의 체험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맞지는 않아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모두 다 사라졌어요. 이럴 순 없어요!” 제자들이란 다 이렇지요. 스승에게 문젯거리를

만들어 주길 좋아합니다. “돌아가라! 내게 골칫거리를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오늘은 원했다가 내일은 원치 않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스승의 단호한 말에 다시 돌아간 그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죽을 때는 스승이 돌봐주겠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그 어떤 체험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다 사라졌지요! 그건 그녀가 세속의 삶을 수행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맘대로 바뀌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무상하며 그 어떤 희로애락과 고통도 한순간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무상한 것을 위해 영원불멸한 보물을 잃어서는 안 되지요. 축복을 받고 명상 중에 삼매에 들고 지혜를 얻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진귀한 것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대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행자들은 때로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도 그의 제자들은 위협을 받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를 따라 신비한 법문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때리고 죽이는 등 각종 야만스런 방법으로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은 마음으로 수행을 했으며, 법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늘날 인도도 똑같아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오해를 받고 억압과 협박, 학대,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수행해 나가고 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크교도 역시 어떤 정부나 왕들로부터 박해를 당해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림 없이 계속 수행했습니다. 일본 ‘일련종(日蓮宗)’의 한 스승도 대중 설법을 했을 때 협박을 당하고 탄압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의 일부 제자들도 권력자들에 의해 살해당했지만, 남은 이들은 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포모사 정부는 아주 훌륭합니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법으로도 보호를 받으니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 역시



때로는 법난(法難)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 여러분이 모르고 내가 말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말은, 비록 세속의 문제와 고통이 많을지라도 수행의 공덕과 복을 세속의 편안함과 바꿔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수행 중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견뎌 내야 합니다. 그런 불행이나 역경을 자신과 용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자마자 퇴임하고 흔들리고 원망해선 안 됩니다. 무슨 수행자가 그렇게 용기도 없고 어린애같이 행동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신심이 강한지 면면히 살펴야 합니다. 남들의 수행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살펴볼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자신의 용기와 대장부다운 품모, 자신의 도심(道心)을 잘 살피고 그것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흔들리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동수든, 도를 제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두 번째로 친다면 수행의 진보가 빠르든 늦든, 체험이 많은 적든 분명히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측정 방법입니다. 우리를 여기 묶어 두기 위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은 우리의 자신감과 용기, 대장부다운 면모와 도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수행해도 성불할 수 있다면 너무 값싸지 않습니까? 그를 어찌 부처라 하겠습니까? 범부나 다름없는데요. 만약 아무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시험도 통하지 못해도 성불할 수 있다면, 그런 부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과 천상으로부터 찬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천인도사(天人導師), 사생자부(四生慈父)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불하고 싶다면, 그 어떤 불리한 상황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알고 용감하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매우 큰 고통도 며칠만 지나면 나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밤이라도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될 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통스런 상황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 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으며, 행복한 상황이라면 더욱 짧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연연해하거나 집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항상 현존하며 매일 우리를 돌봅니다. 얼마 후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 그 영원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춘하추동이 없고 여기와 같은 고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아닙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도 범부의 두뇌의 경지에 있어 다른 경지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미타경』을 읽고 나서 내게 묻습니다. “세상에, 그런 경계에 대체 누가 살고 싶어합니까?” 그러면 나는 대답하지요. “그곳은 당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해 봐야만 서방정토가 어떤지 알고 그제야 그곳에 살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세상에 있었을 때, 제자 중에는 왕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즐거운 환경을 누릴 만큼 누려 봤을 겁니다. 그런 그녀도 서방정토에 갔을 때는 그곳에 너무도 머물고 싶은 나머지, 석가모니불에게 “제가 죽은 후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본 곳은 그만큼 아름다웠던 겁니다! ♥



입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청하이 무상사/ 1995. 8. 25 -27.
독일 함부르크 국제 선심 (원문 영어)
비디오 No. 493

새 입문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입문 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게 는 의미가 아주 큼니다. 입문은 그냥 그곳에 앉아 한 편으론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 입문이 정말 가 치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만 년에 한 번 만날까 말 까 한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얼마만 큼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문 전후 로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입문은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남아 있을 건지, 갈 건 지 망설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든지 남든지 그건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이자 선택이 지요. 나는 육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여러분을 구속 하거나 붙잡거나 그 어떤 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조건 없이 친구로서 여러분 곁을 지킬 뿐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오고, 가기로 마음 먹었 으면 가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입문이 그런 의미 라면 그건 쇼핑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다이 아몬드와 유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사실

상 입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죽을 때는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에게 있 어 입문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될 겁니 다. 죽을 때는 곁에 아무도 없고 동반해 줄 사람도 없 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 힘을 사 줄 수 없고 어떤 사 회적 지위도 지옥 불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 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오직 스승만이 있을 뿐입 니다. 그러면 알게 되겠지요.

무엇을 하든 성심성의로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 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 지 못합니다. 입문을 하는 순간에도 그냥 앉아 과거에 섬겼던 스승, 과거의 부처 등 과거를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아무런 체험도 없는지 내게 묻고,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이게 자신 에게 진정 옳은 길인지 스스로 의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평생을 의심할 겁니다. 또 그 누구에게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여 러분의 시간이 귀중한 만큼 내 시간도 귀중합니다. 설 령 여러분의 시간이 귀하지 않다 해도 내 시간은 귀중 합니다. 재미로 버스와 비행기를 타고 다닐 만큼 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여러분이



나를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슬렁거리며 주위를 배회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선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불평하며 왜 여기 왔고 무엇 때문에 명상하고 왜 이런저런 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라면서 정작 여러분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와서 앉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지,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주방 팀이 요리까지 해주는데, 여러분은 그런 작은 의무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 축복을 받으리라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해도 모든 것을 얻으리라 생각하나 본데, 일은 내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비평만 늘어놓습니다!

옛날에 스승을 찾으려면, 어떤 교사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압니까? 지금 세상에도 대학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내고, 부모가 직접 지불하지 않으면 정부에 낸 세금을 통해 정부가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직접 찾아가 등록 신청을 하고 온갖 시험을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요.

여러분은 내게 왜 밖에 나가 강연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하지 않느냐고 계속 묻지만, 사람들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오늘 입문식 때 최고의 신의 힘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지옥 불만이 그들을 태울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신이 있어도, 신의 힘이 작용해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생각하면 너무도 두려워집니다. 최고의 힘조차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과 재난, 살생이 왜 존재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불쌍한 신이 어찌겠습니까? 그 힘은 산을 부수고 바다를 말리고 온 우주를 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도리어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한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도 내게 여기 와 달라, 저리 와 달라, 이야기해 달라, 같이 머물러 달라, 친구나 가족을 구해 달라 등등 온갖 것을 해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이렇게 느끼지요. ‘스승님은 왜 당신의 직분을 다하지 않지? 왜 인류에 대한 자비심과 사랑이 없을까? 그들이 저렇게도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을 겁니다. 예수가 할 수 있었다면 그가 다 끝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겠지요. 예수가 온 세상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부처가 할 수 있었다면, 나나 여러분 차례는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거만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주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전도 알고 성경도 알며 온갖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외워 버린 후 그 쓸모 없는 지식에 우쭐해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 비판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람보다 더 박식하다는 걸 보여 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자유와 진리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떠들어대는 그것은 광고일 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생각해 스스로 의기양양해하지요. ♥



입문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청하이 무상사/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 No. 717

질문: 최근 까비르의 ‘사랑의 바다’를 읽고 있습니다. 까비르는 진정한 신의 화현이었지요. (스승님: “예, 그렇습니다.”) ‘깔(Kal)’의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문하지 않은 영혼이 죽으면 죽음의 사자가 일종의 속임수를 써서 영혼들을 깔 앞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면 깔이 그들을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승님: 입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깔, 즉 부정적인 힘이 올 겁니다. 깔은 산스크리트어로 부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입문한 사람이라면 스승이 옵니다. 그러니 깔은 여러분을 속일 수 없지요. 입문한 후에 깔은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더 이상 그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을 속이려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일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은 깔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질문: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스승님: 아니에요. 삶이 무섭지요. 그 끝은 언제나 무서워 죽을 지경이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질문: 비입문자에게는 무섭겠네요.

스승님: 하지만 당신은 입문했으니 언제나 스승의

보호를 받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고향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심지어 1만 개의 깔이 온다 해도 여러분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지요.

질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나요?

스승님: 예, 물론이지요! 스승은 그들 모두를 돌봐 줄 겁니다. 그것이 입문의 무한한 공덕이지요. 만약 이 입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안다면 그 놀라움과 고마움에 죽을 겁니다. 정말 입문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여러분 대신 기뻐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굉장한 행운이지요! 정말이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신의 은총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고, 교환하거나 얻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때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천 년을 기도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문은 여러분이 온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것입니다. 입문을 하지 못한 이는, 다소 높은 영적 세계의 존재라 해도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승의 지위에 다다를 길에 들어선 데 반해 그들은 여전히 그저 영적인 존재이거나 천사, 천인(天人-천국의 다양한 경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죽겠지만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낮은 경계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분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그들을 지나 그들보다 더 높고 영광되며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지요. 그들이 여전히 삼계의 어딘가를 떠돌며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신과 함께 있게 될 테니까요!

입문을 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세상에! 입문을 생각할 때면...! 여러분은 6백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입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심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압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 엄선해서 선발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지요.

정말 때가 되어야만 알 겁니다. 때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신은 아주 조금만 알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주 많은 것을 가져다 주며 우리를 위로해도 감옥은 감옥이지요. TV나 라디오는 있을지 모르

지만 빠른 차나 헬리콥터, 궁전 같은 집에 에어컨이 있는 거실, 수영장 같은 많은 것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편하다고 한들 감옥 안입니다. 살 만큼만 갖추고 살게 되지요.

일단 감옥에 가면 형기를 다 마쳤어도 온갖 행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처리할 일들이 더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기가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돕고 있으면 좀더 빨리 석방되겠지요. 또 사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니 확실히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테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재소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락한 생활을 한다 해도 결국 재소자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여러분의 '귀향'을 환영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알게 된다면..., 세상에! 여러분은 결코 상상도 못 할 그런 것이지요! ♥



진정한 입문

칭하이 무상사/ 1998. 3. 10. 영국 런던 단체명상

비디오 No. 631

질문: 스승님,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입문했지만 오볼도 외우지 않고 명상도 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 그를 데리러 가실 건가요?

스승님: 아니요.

질문: 왜요? 그는 과거에 입문했고...

스승님: 그가 돌아가길 원치 않으니까요!

질문: 하지만 입문은 영혼으로 하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님: 압니다. 하지만 영혼이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입문하고 나서 명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스승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입문을 해야 입문인 것입니다. 그는 오기는 했지만 그의 영혼이 입문을 원한 건 아닙니다. 아마 몸만 왔겠지요. 그래서 입문한 후 모든 것을 그만둔 거예요. 그는 그저 호기심 때문에 온 겁니다. 오긴 했지만 영혼이 결정한 건 아니지요.

그러므로 영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오긴 했어도 영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명상도 하지 않고 오불도 외우지 않으며 계율도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모두 그에게 달린 겁니다. 그건 그의 자유니 고향으로 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지만 스승님께 입문을 받았는데...

스승님: 압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해야 해요.

질문: 그는 스승님이 자신을 데려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이생에 신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데리고 와서 입문을 시킨 것입니다.

스승님: 그가 원한다면요.

질문: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신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승님: 그가 원한다면요. 이미 말했듯이 영혼이

원한다면 신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그걸 원해야 합니다. 육신이 아니라요.

질문: 육신이 아니라고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문 때에 그의 영혼이 아직 진정으로 입문을 원한 게 아니라면, 그가 당신과 함께 오긴 했겠지만 그건 당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이거나 스승이 여기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진정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아직 이생 혹은 다음 생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의 뜻대로 다시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다른 스승을 찾게 되겠지요. 내가 말한 건 진정한 의미의 입문입니다.

질문: 스승님, 반드시 그를 데리고 가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에게 속해 있고 신에게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스승님: 그렇다면 자기 할 일을 해야지요. 나는 게으른 사람을 입문시키지 않습니다! 난 입문이 여러분을 신의 왕국으로 데려간다고 말하지 않았습시다. 입문은 깨달음을 준다고 얘기했지요. 명상과 계율, 채식, 그리고 영혼의 갈망이 여러분에게 신의 왕국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말했겠지요. “자, 어서 오세요! 모두들 와서 입문하세요. 채식하지 않아도 모두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공평하지 않아요! 사형, 당신은 싸구려를 원하는군요. (대중 웃음) ♥



스승님을 만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

중국 후베이성 동수

다음은 천 사형이 직접 겪은 이야기다. 수년 전 어느 날, 천 사형은 식품을 사러 가다 우연히 한 관상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사형을 힐끗 쳐다보고는 올해 몇 살이냐고 물었다. 천 사형이 59세라고 말하자, 그는 “그럼, 60세를 넘기기 어렵겠군!” 하고 말했다. “만약 내가 올해 안에 죽지 않으려면요?” 천 사형이 이렇게 묻자 그 관상가는 천 사형을 다시 한 번 보더니 말했다. “살아 있는 부처가 구해 주지 않는 이상 당신은 이 고비를 넘기기 어렵겠소.” 이 말을 해준 관상가는 그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천 사형은 천성적으로 강직하고 순박해서 그냥 운명을 하늘에 맡기기로 했다.

1998년 6월 초, 천 사형은 정말 병이 났다.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더니 차츰 허리 부위까지 고통이 확대됐다. 나중에는 상태가 심각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야 했는데, 진찰 결과 ‘골 결핵’이었다. 천 사형이 이 악재를 부인에게 털어놓자 같은 동수였던 부인은 더욱 열심히 명상하며 스승님께 이 재난에서 그를 구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날 밤 자비로우신 스승님은 사저의 꿈에서 신기한 비전을 보여 주셨다. 첫 장면에서 시든 수세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건 수명이 다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버들가지와 들고 나타나신 스승님이 그 시든 식물에 감로수를 뿌리자 기적이 일어났다. 시든 수세미는 그 즉시 파랗게 변하더니 푸른 잎사귀와 금색의 꽃봉오리가 돌아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사저는 스승님이 이미 천 사형의 수명을 늘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을 알지 못한 채 입원해야겠다고 주장하던 천 사형은 6월 중순쯤 결국 입원하게 되었다. 천 사형의 부인은 병원에 올 때마다 항상 스승님의 가피를 받은 감로수를 한 병씩 가지고 오곤 했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이를 보고, “부인이 매일 물병을 가져오는데, 그게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그녀에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고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지 그래요? 그래야 병이 빨리 낫지요!” 하고 말했다. 그들은 이 물이 평범한 물이 아니며 오히려 그 어떤 건강식품이나 약보다도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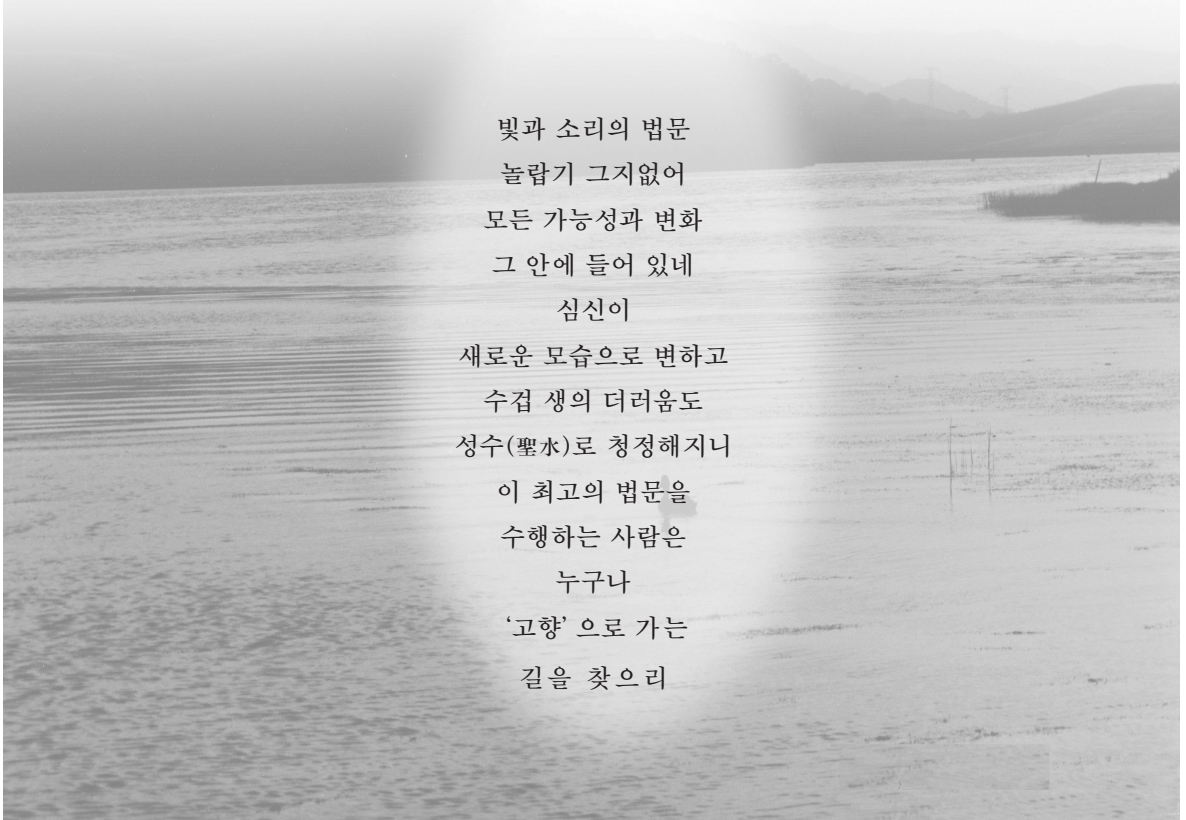
시간이 좀 지나자 천 사형의 몸이 많이 호전되어 그의 심리적인 압박감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11월에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한 후 그는 명상 도중 종종 약 냄새를 맡곤 했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스승님이 그를 낫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낀 사형은 모든 ‘자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천 사형은 병을 통해 축복을 얻었다. 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된 것이다. 입문 전 그의 발가락은 활 모양으로 휘어 있어서 어떤 신발이고 오래가지 못했다. 게다가 등도 굽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었다.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그는 새로이 태어났다. 이번에 스승님은 그를 죽을 고비에서 구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발가락도 똑바로 펴 주셨다. 그의 얼굴은 갓 태

어난 아이처럼 붉게 빛났고 몸도 통통해졌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1년 후 천 사형이 예의 그 관상가를 만났을 때, 그

관상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났군요.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은 그 겁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



빛과 소리의 법문
놀랍기 그지없어
모든 가능성과 변화
그 안에 들어 있네
심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수집 생의 더러움도
성수(聖水)로 청정해지니
이 최고의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으리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지 역 : 캐나다 밴쿠버
방송국 : 라디오 AM 1470
주 제 : 칭하이 무상사 강연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00 - 9:30 (영어 방송)
오전 9: 30 - 10:00 (어울락어 방송)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TV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방송 시간표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piritual-discovery.org/events/tv.htm>

재난은 무정하나 부처는 자비롭다

중국 본토 후베이성 동수

나는 1995년 10월에 처음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1997년 1월에 입문했다. 스승님의 책을 읽고 난 후부터 나의 나쁜 습성들은 큰 폭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입문할 때 나는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내 모습 또한 확 달라진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나와 가족들은 위험한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매 순간 스승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재난을 넘길 수 있었다.

올해 4월 5일 나의 둘째 딸이 출장을 가게 되었다. 딸은 전달할 물건들을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는 그 외 6명의 손님들이 있었

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안해 자리를 7번이나 바꿨다. 결국 버스가 전복되어 한 사람이 죽고 네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내 딸과 그 옆 자리에 앉았던 승객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현장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매우 신기해하며 말했다. “당신 가족 중에는 분명히 채식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나 보군요. 그러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죠!”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정말 ‘재난은 무정하나 부처는 자비롭다’는 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 힘

럭키 사저/ 미국 미네소타 (원문 영어)



올해 어머니날 겪은 체험을 전 세계 사형 사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올해 플로리다에서 어머니날 축하행사가 열렸지만 나는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그날 미네소타 센터 단체명상에 참석했다. 비디오 시청 시간에 비디오 켜는 일을 맡게 된 나는 선반에 놓인 수백 개의 비디오 중에서 제목도 살피지 않고 아무것이 하나 집었다. 마침 그것은 스승님께서 1999년 어머니날 네덜란드에서 강연하신 비디오 테이프였다. 스승님이 강연장 안을 걸어도다니시며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자 깜짝 놀라면서도 행복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스승님이 내가 있는 센터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바다이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체험은 내가 1990년 입문한 후 몇 개월이 지난 무렵이었다. 어느 날 두 아이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폭풍우와 같이 강한 힘이 나의 머리 정수리에서 솟구쳐 나왔고 나의 작고 귀여운 진아는 그 주변을 빙빙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나는 스승님이 참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스승님의 모든 축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갈망은 신의 왕국으로 통하는 열쇠

청하이 무상사/ 1998. 3. 10. 영국 런던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 No. 631

이미 말했듯이 입문자들에게 중요한 건 영혼이지 육신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오불을 외워도 스승이 가르치는 좋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실로 신을 존경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처럼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은 굳이 신과 오불을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미 그 갈망이 존재합니다. 오불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언제나 스승을 원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신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결코 오불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스승은 무엇이든 해줍니다. 심지어 입문하지 않아도 데려갑니다. 꼭 입문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법만 수행해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승을 단 한 번 봤어도 임종 때 성심으로 기도하면 스승은 옵니다.

그러나 어떤 입문자들은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들은 입문하면 무엇이든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이 윤회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므로 스승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옆에서 그저 거들

뿐입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종파의 수행자들 역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아마 우리 단체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스승의 힘에 의존해 입문하면 모든 게 생긴다고 여기며 밖에 나가 온갖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다른 곳의 수많은 '종파'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받지요. 그들은 스승에게 입문

을 받았으니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며 또 윤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예요!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신이나 스승의 기준에 따른 최선은 아니지만,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선 최선을 다하지요. 기회가 왔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그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야지요.

혼자 수행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명상이 필요합니다. 입문 후 명상을 하지 않고 오불을 외





지 않으며 채식도 하지 않는다면 자기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 스승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스승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걸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면, 그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나에 달렸죠.

때로 어떤 이들은 겉보기엔 명상을 잘 못하지만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해탈을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매우 미묘한 것으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알아들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여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러분의 유일한 애인이란 걸 알지요. 그것을 다른 이에게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마음은 그녀가 여러분만의 그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미인이 얼마나 많은 오직 그녀만 사랑하지요.

수행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마음은 자신이 신을 원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몇 시간을 명상하고 단체명상을 몇 번 갔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체명상은 여러분을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신을 원한다면 단체명상은 여러분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신실하고 명상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그러므로 단체명상에 자주 간다고 해서 신을 갈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면 대신 옆집 아가씨를 보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요. 아무리 예쁘고 똑똑하고 부자라 해도 여러분은 오직 한 여성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럼 된 겁니다. (박수)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물질적으로 입문했다고 해

서 신에게 도달할 것이란 잘못된 관념을 심어 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신성모독이니깐요! 그러면 억지로 입문하게 되겠지요. 입문한 후 여러분 마음이 변했다고 해도 나는 여러분에게 신의 왕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는 건 모두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이며, 남아서 수행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종 때도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속한 곳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안 돼요, 스승님. 그냥 됐어요! 안녕히 가세요! 전 옆집 아가씨를 만나러 다시 오겠어요” 한다면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신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애초부터 없던 것이나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입문은 단지 여러분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신의 힘을 일깨워 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말이지요. 만약 원치 않는다면, 예전처럼 한쪽에 내버려둔 채 그 무지한 삶을 계속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입문과 단체명상, 채식, 오가는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신을 원치 않는다면, 천 년을 채식하고 2천 년을 명상하고 3천 번을 입문한다 해도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겁니다. 이것들은 단지 외면의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아무개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지요.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정말 신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엔 명상도 잘 못하고 오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압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자신이 신을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대중 박수) ♥



부정적인 상황의 긍정적인 의미

밍바이 사형/ 미국 샌프란시스코

나는 스승님의 가르침 중에서 나의 친구의를 점검할 '지침'을 하나 발견했다!

일상생활 중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리가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롭다, 신은 최상의 안배를 하신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 어떤 원망이나 미움, 분노, 복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최상의 해결책은 그 상황 속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재빨리 간파하고 '좋은 일은 행운이고 나쁜 일은 불행이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친구의를 철저히 점검하고 최근 자신이 신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꼼꼼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많은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진짜 원인을 찾아냈을 때 겉보기에 부정적인 상황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내가 깊이 깨달은 것은 '부정적인' 상황 이면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항상 자신을 반성하며 그것의 진정한 원인을 밝혀 내고자 노력한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건은 신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다. 신은 결코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 사실만 기억해 낸다면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신께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다. ♥



장애를 이점으로!



리처드 스투어트 사형 (원문 영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다시 옮긴 이 이야기는 스승님이 법문 중 자주 언급하시는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출처 사이트: <http://www.cactusumpires.com/pages/sub/parables.html>)

개구리 한 무리가 숲 속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 중 두 마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버렸다. 다른 개

구리들은 즉시 웅덩이 주변에 모여 그들이 뛰쳐나오려고 폴짝폴짝 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보기엔 웅덩이가 너무 깊어 빠져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래서 웅덩이에 갇힌 두 개구리에게 그냥 포기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웅덩이가 너무 깊어. 이젠 죽은 목숨이야!"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들이 그

도 계속 시도하자 위의 개구리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포기하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잠시 후 안 그래도 기운이 소진됐던 개구리 한 마리는 다른 개구리들의 말에 따라 그냥 쓰러져 죽어 버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 번째 개구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라, 죽은 목숨이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빠져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계속 펄쩍펄쩍 뛰었다. 마침내 크게 한 번 뛰더니 그 웅덩이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이 놀라운 결과는 그 개구리가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들이 용기를 북돋기 위해 소리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격려라고 잘못 받아들인 덕분에 그 두 번째 개구리는 더 큰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노력해 결국 모든 장애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것이 두 개구리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이야기 속의 첫 번째 개구리의 경우,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에서 벗어

나라고 하셨던 스승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번뇌라는 것을 알고,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언제나 최고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뉴스잡지 17호 감로법어 중)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던 긍정적인 두 번째 개구리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조차 격려로 받아들여 장애를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했다. 반면 첫 번째 개구리는 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잠재력을 포기하는 바람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비평이나 냉소적인 말을 극복해야만 두 번째 개구리처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남의 영향을 받을 수 없었던 그 개구리처럼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무상의 지혜’가 있어야만 맹목적으로 세상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

인자무적 (仁者無敵)

리 원평 사형/ 포모사 타이난

한번은 시후 센터에서 일을 하고 나서 센터에서 돈을 줌 준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받고 싶지 않았으나 센터에서 계속 주려고 해서 그 돈을 받아 만세등을 샀다. 집에 돌아와 우리 집 맞은편에 사는 이웃들을 보았을 때, 갑자기 그들이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샘솟았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꼭 껴안고 키스해 주고 싶을 정도였다! 사실 그 가족은 우리 집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스승님의 만세등이 들어온 후 나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잘 대해 주고 싶어졌다.

이 경험은 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상기시켜 줬다. 우리는 단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더욱 확대해 ‘인자무적(仁者無敵)’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 진실한 사랑이 있기만 하다면 이전의 모든 원수들은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키우는 법문인 관음법문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과 친구의 구분이 없어져 세계 평화도 머지 않아 실현될 것이다. ♥

용감하고 정직한 모범이 되라

청하이 무상사/ 1995. 11. 3.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 NO. 511



이건 제(齊) 나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은 티엔이었지요. 어느 날 그는 성대하게 향연을 베풀어 토지신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석해서 많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떠돌고 놀았습니다.

그 중 한 손님이 티엔 씨에게 희귀한 물고기와 새, 그리고 매우 진귀한 제비 둥지를 선물했습니다. 중국에서 제비 둥지는 굉장히 비싼데, 몸에 대단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둥지를 만들기 위해 제비는 침을 토해야 하는데, 만약 사람들이 둥지를 가져가면 다시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침도 없고 몸 속에도 뱉어 낼 영양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결국 피가 날 때까지 토해 내게 됩니다. 이렇게 피가 섞인 침으로 만들어진 둥지는 붉은 핏빛을 띠는데, 하얀 둥지보다 훨씬 비싸지요. 사람들이 먹는 제비 둥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채식 식품이라고 해서 다 채소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를 죽이지는 않아도 새들은 고통스럽게 죽거나 굶주림, 영양 부족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살생인 거죠. 때가 되면 새들은 후손을 위해 둥지를 준비하는데, 그건 새로선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둥지를 빼앗아 버리면 새들은 또 새로운 둥지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침을 뱉어 내며 결국엔 둥지를 완성하겠지요. 완성될 수도,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명과 귀중한 건강을 희생하며 해야 합니다. 새끼가 태어났을 때는 어쩌면 기력이 소진되어 돌보지도 못할 겁니다. 물론 인간이 그 새끼들은 잘 ‘돌봐’ 주겠지요. 따뜻한 뱃속에 넣어 영원히 품어 줄 겁니다. 늘 있는 일이지요.

티엔 씨의 연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이런 진귀한 핏빛 제비 둥지나 희귀한 물고기를 선물하자 티엔 씨는 매우 감동했고 우쭐해졌습니다. 그는 아마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잔치를 열지도 못했을 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는 매우 감동하고 우쭐한 나머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 신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자, 신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들을 보시오! 우리의 입맛과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온갖 동물을 창조해 주시지 않았겠소!” 사람들은 신을 찬미하는 그의 말을 듣고는 모두 박수를 보내며 함께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는 12세의 소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채식주의자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막 12세가 되어 청하이 무상사에게



완전입문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대중 웃음) 소년은 일어나서 말했어요. “대인(大人), 대인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자 ‘대인’은 깜짝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내 말이 틀렸다는 건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건가? 나이도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저희 스승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스승님께선 ‘세상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 신은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예술적인 창조력, 똑같은 목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진 않습니다. 신은 각기 다른 목적과 동기 때문에 각기 다른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대인께선 물고기나 새, 소 같은 중생들이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모기를 보세요. 모기는 사람의 피부를 물어 피를 빨아먹죠. 사자와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럼, 신이 모기나 호랑이, 사자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건가요?” 그러자 대인과 귀빈들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선, ‘세상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인간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지능과 힘을 오히려 더 악하고 순하고 사랑스럽고 인간보다도 덜 해로운 다른 중생들을 편의대로 이용하고 해치는 데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생이든 우리가 먹거나 이용하기 위해 신이 창조하신 것이라곤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자리에 있던 대인과 귀빈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이런 말을 어디선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백악관일 수도 있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농담이에요. 백악관이 아니라면 ‘파랑관’이나 ‘분홍관’, ‘노랑관’에서 할 수도 있지요. 우리 아이들도 대부분 아주 영리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곳에서 배운 것을 남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로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말하길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똑똑하고 강하고

지혜가 성숙한 우리 어른들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우리가 칭하이 무상사를 따르고 있으며 오계를 지키고 자비를 위해 채식하고 있다는 말을 감히 꺼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두려워니까요. 사람들과 멀어질까 봐, 지위가 흔들릴까 봐, 호의를 베풀던 상사가 등을 돌릴까 봐, 아내의 사랑이 식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식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할까 싶어서, 친구들이 떠날까 싶어서, 남들이 자신을 외계에서 온 사람인양 이상하게 보거나 무시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두렵습니다. 심지어 정육점을 지날 때마다 그 사장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볼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두려운 건 남들과 다르면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점이 빛나고 아름답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두려운데



뭐 하러 굳이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리며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편이 나을 텐데요. 그렇게 살면 아마 영원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있으면서 언제까지나 모든 이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 동물들과는 그렇지 못하겠지만요. 가는 곳마다 개가 짖어대고 황소가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나는 투우 영화를 많이 봤는데, 가끔 소들이 투우사에게 달려들 때면 정말 그대로 삼켜 천국으로 보낼 듯이 보입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업장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12세의 이 소년처럼 용감하다면(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세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형사자들이 생기고 출혈과 폭력, 전쟁도 감소하고 평화회의도 줄어들겠지요.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 테니까요. 제네바의 특급 호텔에 머물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경호원과 신변 보호 장치를 이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며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에 대해 침을 튀겨 가며 설전하지 않아도 그때엔 평화가 확실히 우리 지구를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성인의 길을 따른다면, 또 어렸을 때부터 비폭력의 품성을 기른다면 모든 아이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처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과 싸움, 폭력에 싫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함께 모여 앉아 이 모든 비상식적인 행위를 그만두자고 결정할 날이 올 겁니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스로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면 항상 “넌 개야, 넌 짐승이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몇몇 인간들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배고픔 때문에 싸우고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순해져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은 종족은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하고나 싸웁니다. 이웃이든 자식이든 아무하고

나 싸우지요. 그건 타협이나 평화스런 군자의 길을 통해 서로간의 차이를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런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동물들은 아주 많은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인간보다 낫기도 합니다. 개는 신의가 대단하고, 말은 매우 충성스러우며, 소는 정말 온순합니다. 소는 진초만 조금 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뿐 아무런 대가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인간이 동물을 깔보고 언제나 인류보다 하등하다고 여겨도 될 만한 권리나 위엄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처신한다면, 즉 전쟁을 일으키거나 모든 일을 총과 피, 인간의 생명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동물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만한 존엄성이나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물들을 낮춰 보는 건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아이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아이들이 이 이야기 속의 소년처럼 용감하고 솔직하며 정직할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아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





사랑의 고향

한나 부 사저/ 미국 인디애나 (원문 영어)

내가 스승님의 5월 12일 생신과 어머니날 기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플로리다 센터에 도착한 것은 이른 저녁이었다. 해는 이미 졌지만 하늘은 맑고 아름다웠다. 나는 텐트를 치기 위해 작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여자 캠프 지역으로 걸어갔다.

그때 개집에서 나온 하얀 개가 나와 다른 사저에게 슬며시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 개가 풍기는 뭔가 특별한 점에 나는 묘한 감동을 받았다. 아마 그의 우아한 태도와 사랑스런 눈길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을 처음 봤을 텐데도 그는 친절하고 온순하게 우리를 따라오며 마치 '환영의 키스' 라도 하는 듯 코를 내밀었다. 목에 걸린 줄이 꽤나 길어서 우리를 계속 따라올 수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 그 내면의 평화가 느껴져 나는 영적으로 고양된 느낌을 받았다.

텐트를 치고 난 후, 나는 그 개의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개집을 찾아가며 혹시 너무 외롭진 않을까, 말벗이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나는 다정하게 말을 걸며 부드럽게 그의 머리와 턱을 쓰다듬어 주었다. 개집은 1인실 방 크기(2.5m×3m)만했는데,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어 있었다. 들어가는 입구가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컸고, 양쪽 벽에는 창문이 하나씩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왼쪽 바닥에는 시트가 꼭 맞게 깔린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폭신한 베개와 가지각색의 장난감, 커다란 플라스틱 뼈다귀가 놓여 있었다. 또 한



쪽 구석에는 야간용 작은 전등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개가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과 함께 기쁨과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 개집의 오른쪽 바닥에는 큰 물그릇과 채식 먹이가 담긴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또 뒷벽의 작은 테이블 위에는

스승님의 사진이 담긴 소박한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개의 눈 높이와 딱 맞는 높이에 있었다. 그것을 보자 내 가슴에 기쁨이 가득 찼고, 그제야 그 개가 왜 그토록 평화로워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더구나 그 개는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랑의 오오라를 발산하고 있었다. 아마 그는 경지가 높은 영적인 개일 것이다!

다음날 새벽 명상 홀에 오신 스승님은 사랑으로 대하신 이전의 이웃들과 의사에게 얽힌 이야기를 해주셨다. 스승님은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며 이웃들이 어려울 때나 도움을 청할 땐 언제나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때로는 그들의 애완동물까지 돌봐 주시곤 하셨다. 이웃에게 선물과 옷을 사서 전하고 그들의 개들을 돌봐 주셨으며, 심지어 개들의 응급치료 계산서도 당신이 지불하셨다. 그 외에도 의사가 아팠을 때는 병원에 시자를 보내 그를 돌봐 주도록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선의를 곡해하고 이 '심상치 않은' 온화한 관심에 대해 적의를 나타냈다. 그들은 스승님의 의도를 의심스러워하며 캐물었으며, 많은 이들이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에 대해 존경을 표하기는커녕 오



히려 그 좋은 마음과 관대함을 이용했다. 더욱 안 좋았던 것은 스승님이 그들의 가족을 돌봐 주시는 것을 시기하고 불편해했다. 그때부터 스승님은 그들에게 그냥 예의상 인사만 하시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스승님은 길에서 차에 치인 주머니쥐를 발견하셨다. 그를 구해 주고 싶었지만 야생 동물을 기꺼이 치료해 줄 만한 수의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 그 늦은 시간까지 문이 열려 있는 동물 병원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한 수의사가 스승님의 간청에 마지못해 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불쌍한 동물은 스승님의 명상에 나타나 “엄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말했다. 그래서 스승님이 그 의사를 찾아가 알아보니 금방 죽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동물의 영성이 때로는 우리

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들은 플로리다 센터에서 인사를 한 그 개처럼 많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사랑을 주고받는 걸 배운다. 그들은 모습만 다를 뿐 우리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면에서 사랑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주: 어느 날 플로리다 센터의 장주들은 센터에서 떠돌이 개를 한 마리 발견했다. 그 개는 바짝 마른데다 온몸에 벼룩투성이였다. 또 많이 아픈 상태였다. 장주들은 우선 오두막에 임시로 데려다 놓고 다음날 수의사에게 데려가 보았다. 그때부터 ‘스마일리’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개는 장주들의 정성스런 간호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사실 플로리다 센터에는 개와 고양이들이 늘 들락날락한다. 센터에는 그들을 끌어당기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듯하다. 또 찾아오는 대다수가 다치거나 영양 실조에 걸린 동물이다. 그러면 장주들은 먼저 그들을 간호해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선 주인을 찾기 위해 전단지나 동네 수의사, 이웃에게 수소문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원래 주인을 찾아주려 노력한다. 그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전단지나 신문 광고를 통해 그들에게 좋은 집을 찾아 주려고 노력한다. ♥

물고기를 기르며

옐시 청 사저/ 말레이시아 팔라루푸르 (원문 영어)

온갖 취미 생활 중에서도 물고기 기르기는 내게 전혀 생기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물고기를 길러 보자는 생각이 들었을 때 꽤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열대어를 몇 마리 사서 새로운 여가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로선

물고기가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문외한이 물고기를





기른다는 건 꽤나 큰 도전이다. 나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겨우 성공할 수 있었다. 수족관에 있는 내 물고기를 보고 있으면 그들은 같은 종끼리 떼를 지어 헤엄을 치는데 마치 서로 쫓아다니며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인다. 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채고 내가 먹이를 줄 때면 왔다갔다하며 내 손을 반긴다. 밤이 되면 수족관 바닥의 조약돌 위에서 쉬는데 주변 환경은 완전히 잊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물고기가 동물의 왕국에서는 다소 열세인 종이지만 그들도 함께 무리를 지어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새끼를 기르고 함께 어울려 살며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떼를 이루어 움직인다. 그들에게도 기분이라는 게 있으며 때가 되면 잠도 자야 한다.

나는 이전에 물고기에 대한 책도 읽은 적이 없고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예전의 내게 있어 물고기는 반찬거리 중 하나였을 뿐이다. 우리는 대대로 ‘물고기는 음식 중 하나’라는 생각을 배워 왔다. 나는 7년 전에 스승님께 입문한 후 수행을

위해 물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지만, 이런 관념은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물고기를 기르기 시작한 지 얼마 후 왜 그때 이런 취미를 가지려고 생각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전의 잘못된 생각과 무지를 깨끗이 씻기 위한 스승님의 축복이었던 것이다!

이제 날마다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는 애완 물고기를 볼 때마다 나는 인간과 물고기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모습만 다를 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따르며 살아간다. 좀 더 큰 공간에서 ‘헤엄’을 칠 뿐, 우리는 그 공간에서 일상을 반복하고 육체라는 테두리의 제한을 받으며 잠시 잠깐의 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물고기를 기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동물도 인간처럼 생존권이 있으며, 그들의 존재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하며,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해야만 진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선물 - 도마뱀붙이 이야기

츠하이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어느 날 도마뱀붙이 한 쌍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사방을 마구 돌아다니며 나를 놀라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도처에 배설물을 남겨 정말 귀찮게 만들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 동을 깨끗이 치우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매우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으나 모기를 잡듯이 컵으로 덮어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별수없이 집에 살게 내버려두었다.

도마뱀붙이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 내가 환영하

든 않든 개의치 않고 우리 집에 세들어 살기로 결정했다. 물론 나는 이 세입자에게 집 주인으로서 아무 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귀빈처럼 융숭히 대접했다. 관음법문도 완전 무료인 것을 생각하니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스승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처럼 대하듯이 나 또한 사랑과 인내로써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차츰차츰 그들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우호적이 되었다. 내가 스승님의 오디오 테이프를 틀어 놓으면 그들도 끝날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경청했다.



내가 사랑과 인내로 그들과 교감하려고 하자 그들 역시 알아들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 데서나 ‘불일’을 보지 말고 내가 깔아 놓은 종이에 보라고 부탁하자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내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들이 훨씬 좋아졌다. 그들은 내 사랑을 느낄 뿐 아니라 나의 목소리까지 알아들어서 ‘다다’하는 소리를 내며 나와 인사를 나눴다. 정말 귀엽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엔 서로를 놀라게 하는 일이 없어졌다.

어느 날 새끼 도마뱀붙이 중 한 마리가 병이 났다. 나는 그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 유일하게 떠오른 생각은 스승님의 법상 앞에 두고 불찬을 틀어 주는 것이었다. 그 새끼 도마뱀붙이는 마치 스승님을 아는 것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스승님의 법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엔 씻은 듯이 나아 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이리저리 팔짝팔짝 뛰어다니더니 눈 깜짝할 새 사라져 버렸다.

스승님은 정말 무소불능, 무소부재하시다. 스승님은 모든 중생들을 당신 몸인 양 돌보시며 함께하신다. 훗날 얼마 도마뱀붙이가 죽었는데, 정말 총명하게도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해 죽었다. 커다란 스승님 법상

앞의 마룻바닥에서 평안히 떠난 것이다.

아마 스승님이 돌봐 주시리란 것을 알았나 보다. 도마뱀붙이들은 보통 스승님의 법상이나 스승님의 그림 뒤편에서 쉬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분명히 살아 계신 스승의 사랑과 아름다운 자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똑똑한 친구들이다!

맨 처음 도마뱀붙이 한 쌍이 우리 집에 정착한 후 이제 도마뱀붙이는 3대째 이어지고 있다. 제일 신기한 것은 그들이 새로 태어난 도마뱀붙이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많은 즐거운 시간을 주고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 준 이 사랑스러운 도마뱀붙이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이제 나는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식물, 이 우주 만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갖가지 사물들을 통해 이런 진귀한 공부를 하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나에게 있어서 이는 가장 아름다운 공부이자 사랑의 선물이었다. ♥

훌륭한 ‘검둥이’

중국 본토 동수

1953년 2월에서 1959년 가을까지 우리 집에서는 검둥이라는 개를 한 마리 키웠다. 검둥이는 몸집이 건장하고 온몸에 검고 긴 털이 나 있었는데 마치 사냥기 그지없는 사자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개가 우리 집 앞에 앉아 있으면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다른 개들도 우리 개를 보면 슬슬 피해 다녔다고 한다. 하지

만 검둥이는 비록 사납게 생겼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온순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러니 외로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

사실상 검둥이는 아주 착해서 다른 개와 결코 싸우지도 않았고 사람도 물지 않았으며 작은 동물도 못 살게 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그



를 좋아하며 결코 없어선 안 될 식구로 여겼다. 검둥이가 죽고 나자 아버지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였다. “검둥이는 정말 똑똑해서 뒷다리로 서서 여러 발자국이나 걸을 수도 있었다. 정말 귀여웠지...”

검둥이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래, 강아지였을 때 아궁이에 들어가려다 나한테 단 한 번 혼나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검둥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 때로 내가 저녁 9시가 넘어 들어올 때면 그는 4, 5리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 마중을 오곤 했다. 한번은 마중을 나와 갑자기 등뒤에 올라타는 바람에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못했던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는 그리고도 뒷발로 서서는 앞발로 나를 잡고 계속 키스를 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다시는 그렇게 놀래지 말라고 하자 그 후로 마중을 나올 때면 먼저 자기가 온 것을 알린 후 내 주위를 기쁜 기색으로 빙글빙글 돌았다. 검둥이는 내가 나갈 때마다 항상 따라 나와 15리를 배웅하곤 했는데, 내가 가라고 해도 듣질 않았다. 가끔 먹을 것을 좀 주면서 잘 달래면 풀이 죽은 채 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래서 나는 길에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가 잘 돌아갔는지 걱정이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검둥이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자라면서 많은 고생을 겪은 것이다. 1959년 봄, 중국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어 식량 부족이 심각했다. 많은 가족들이 굶주렸고 한끼 먹고 나면 다음 끼니거리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오래

생활했던 검둥이는 꼭 참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선 응석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밥과 반찬이 남아도, 설령 그 앞에 놓아주어도 먹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결코 먹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작고 낮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그는 조용히 서서 우리가 먹는 모습만 바라보았다. 침을 흘릴지언정 밥상에 달려들어 아무 음식이나 먹진 않았다. 다른 개들의 경우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게걸스럽게 먹어댔지만 검둥이는 그렇지 않았다. 너무 생각이 깊어서 오히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똥이라든가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은 결코 먹지 않았다. 그리고 가난한 주인 곁을 늘 지켰다.

검둥이가 나날이 여위어 가고 용맹스런 기운이 약해지는 것을 보며 부모님은 가슴 아파하였다. 우리와 함께 고생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보다 형편이 나은 집으로 그를 보냈다. 그러나 사랑스럽고 가련한 검둥이는 식음을 전폐한 채 계속 우리를 그리워하더니 오래지 않아 또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다. 검둥이는 ‘개는 가난한 주인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중국 속담을 그대로 증명하며 우리 가족과 함께 고난과 풍파의 세월을 겪었다.

1959년 봄, 아버지는 가족을 가난과 죽음의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고향인 지아오동을 떠나 떠나면 대서북으로 돈벌이를 하러 가셨다. 아버지가 어깨에 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자 검둥이는 한눈에 아버지가 오랫동안 멀리 떠나 계시리란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매우 슬픈 모습으로 아버지 뒤를 따라 나섰다. 아버지가



둘러보내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다. 검둥이가 우리와 함께 그토록 오래 살았어도 말을 듣지 않은 건 그때가 유일했다.

검둥이는 아버지가 마을을 벗어나자 그 뒤를 따르며 다른 성(省)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다. 아버지는 검둥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라고 소리치고 심지어 화를 내며 욕까지 했는데, 검둥이는 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버스에 올라탄 아버지는 검둥이가 이미 힘도 다 빠지고 했으니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읍에서 다른 성까지는 30리가 넘었는데 자갈길이라 굉장히 길이 안 좋았다. 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아버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검둥이가 아버지 저 뒤편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아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충직하다니! 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그는 아버지의 손에 앞발을 올려놓았는데, 검둥이의 발은 버스를 쫓아오느라고 발바닥이 갈라져 네 다리는 피로 흥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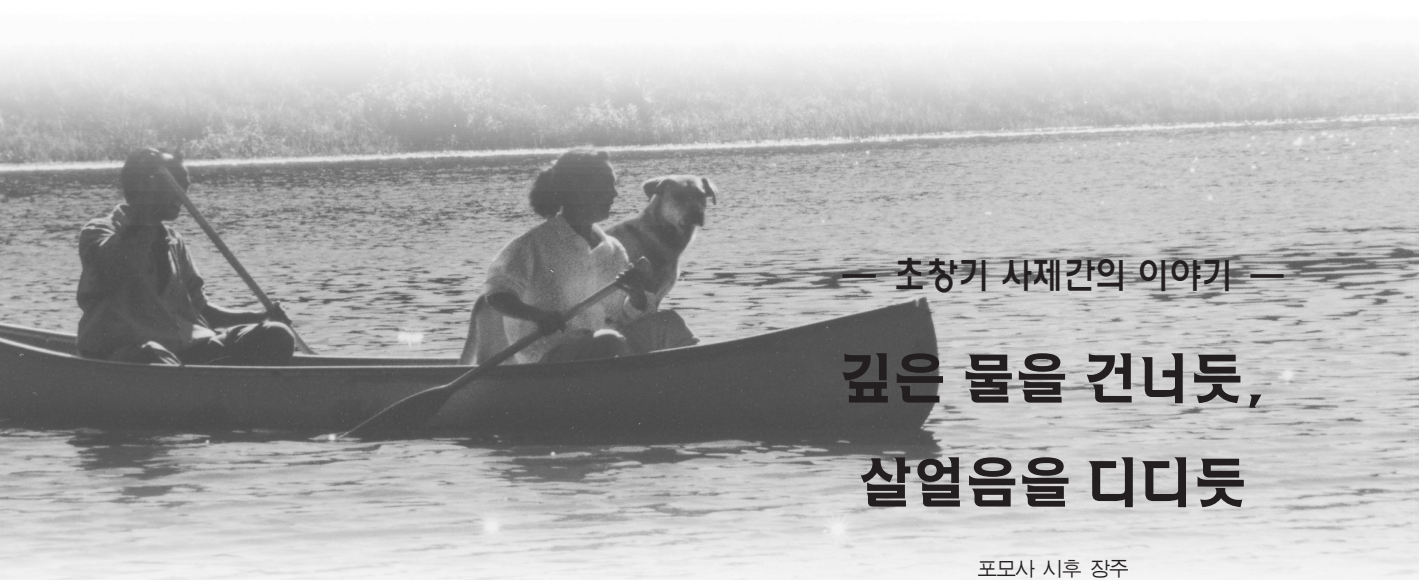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검둥이에게 짐을 지키라고 하곤 근처의 가게에서 호떡을 2개 사셨다. 아버지는 호떡을 검둥이에게 주려고 하는 순간 그제야 검둥이가 늙었고 이빨도 몇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빵을 조각조각 잘라 주며 눈물 어린 손으로 먹여 주었고 검둥이도 또한 슬퍼서 울었다. 아버지가 열차를 올라타자 검둥이는 더 이상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기근이 점점 심해져 한동안 아버지 역시 외지에서

고생하시느라 가족을 돌볼 수 없었지만, 검둥이는 계속 이 가난한 가정을 지켰다. 그러다 1959년 가을 어느 날, 검둥이는 우리 집 대문 앞 구덩이에서 굶어 죽었다. 아버지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곤 그를 보통 천상의 나무라고 부르는 참죽나무 밑에 묻어 주시며 검둥이가 천상에 올라가 그 나무와 함께 영원히 살길 기원하셨다. 가난과 기근으로 많은 인명을 빼앗긴 어려운 당시로서는 검둥이의 죽음은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둥이는 우리 가족의 가장 좋은 식구였다. 그는 충성스레 우리를 지켰고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 줬다. 우리 온 가족은 그의 고귀한 품성을 소중히 간직했다. 기근이 가장 심했을 때도 그는 결코 음식을 갖고 다투지 않았다.

이 일들은 내가 어렸을 때 실제 있었던 일로 내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시사해 주었다! 우리가 고귀한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성과 서로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보다 나을 게 없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신의 창조물은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그 중 검둥이의 가치는 말로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검둥이가 죽었을 때 너무나 슬퍼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부모님은 아직도 검둥이를 가슴 깊이 그리워하며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종종 검둥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곤 한다.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항상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신의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검둥이로부터 배운 교훈이다. ♥





— 초창기 사제간의 이야기 —

깊은 물을 건너듯, 살얼음을 디디듯

포모사 시후 장주

스승님 곁에서 함께 지냈던 초기를 돌아보면, 스승님은 항상 엄청난 압박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셨다. 스승님 옆에 있던 우리는 하루종일 일에 집중해야 했는데, 그래도 몇 사람이 서로 교대해 가며 일해야만 겨우 스승님의 엄청난 업무량을 따라갈 수 있었다.

스승님 곁에 있으면 집중이 잘되고 매우 편안해졌는데 이는 스승님이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스승님의 자장은 편안하고 평온하며 상서로워서, 스승님 곁에서 일할 때면 우리는 자연스레 지혜안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예리한 판단으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스승님과 떨어지면 이런 능력과 감각은 차츰 사라져 다시 과거의 게으르고 산만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경험을 겪은 후, 나는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수행의 세계는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며, 따라서 ‘요행’이란 말은 우리 사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은 스승님이 나를 교육시키시며 수행 정진의 중요성과 요행에 의지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다. 스승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말에 처소로 가 보니, 마침 식사를 하고 계시던 스승님은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다.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다 한 사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사형은 전에 자신이 질투의 품성을 완전히 없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질투와 함께 파생됐던 원망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도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가 부러웠다! 어려서부터 질투심이 많았던 나는 이 좋지 않은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형을 보며 존경심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론 그렇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 의기소침해졌다.

그러나 스승님은 내 느낌을 듣고 나신 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스승님의 반응에 나는 의아하고 당혹스런 마음이 들었다. 그때 스승님은 “하나의 적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그제 자축할 일인가? 그럼 다음 순간 또 다른 적의 총알을 맞고 쓰러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스승님의 말씀은, 그가 자신의 작은 성과에 지나치게 만족한 나머지 경계를 늦춘다면 곧 다른 좋지 않은 품성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란 뜻이었다. 잠시 멍해졌던 나는 즉시 비록 힘들게 노력해 나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더라도 깊은 물을 건너듯, 살얼음을 디디듯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족하거나 경계를 늦춰선 안 되는 것이다.

스승님의 이런 비유를 듣고 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좋은 품성을 계발해 나가는 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철저히 요구하는가에 달렸다. 당시 내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나는 주의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당연히 난 늘 피곤했었고 언제쯤이나 이 경계를 풀고 이완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하고 스승님께 여쭙었더니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끝나겠지! 끝날 거야! 죽을 때면 끝나겠지.”

스승님의 답변을 듣고 나는 다시 한 번 스승님이 얼마나 당신 자신에게 엄격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하루는 스승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들어오신 저녁 늦게 내게 물으셨다. “오늘 낮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답변했는데, 너무 호되게 대한 건 아닐까?” 그때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스승님이 하시는 건 모두 완벽한데, 어째서 내게 의견을 물으시는 거지?’ 스승님이 하시는 일마다 그렇게 완벽하신 이유 중 하나는 스승님이 자신에게 엄격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켜보며 반성하시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을 하려면 3번 생각하고 나서 하고, 말하려면 7번 자제하라고 일깨워 주셨다. 또 일을 하기 전에도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일을 마친 뒤에도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셨다. 스승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 행하신다. 스승님의 이런 짙막한 몇 마디는 수년이 지나도록 내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받은 그 이로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



스승님의 가능할 길 없는 능력

포모사 시후 장주

예전에 스승님의 시자로부터 스승님이 공문을 굉장히 빨리 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스승님은 내게 그 사실을 입증해 주셨다. 하루는 스승님께 상당히 긴 공문을 전해 드리고 가까이에서 있는 사무실로 막 들어섰을 때, 스승님께서 보고서를 벌써 다 읽고 처리하셨으니 공문을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스승님은 공문을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히 읽으셨을 뿐 아니라 한번 본 건 결코 잊지 않으셨다. 일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면 그 세세한 부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또 스승님과 통화하면서 내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전에 스승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한번은 스승님께서 말씀을 받아쓰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 받아쓰자 놀랍게도 멀리서 통화 중임에도 스승님은 바로 옆에서 내가 쓰는 것을 보고 계신 것처럼 그 글자를 고쳐 쓰도록 말씀하셨다. ♥

인삼의 교훈

포모사 시후 장주

1992년 스승님은 필리핀을 방문해 필리핀에 있던 어울락 난민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코라손 아키노 여사를 만나셨다. 인연도 묘하게 전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마르코스 여사도 마침 스승님이 묵고 계시던 호텔에서 강연을 했는데, 스승님은 난민들에게 보여 준 그녀의 자비심에 대한 답례로 여사를 당신 방으로 초대하시고 그녀를 위해 친히 소파에 새로 천을 씌우며 자리를 청하셨다.

당시 스승님은 난민 문제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다.

스승님의 시자였던 나는 상품의 백삼을 한 뿌리 갖고 있었는데, 스승님이 원기를 회복하시도록 몇 조각 잘라 차를 끓여 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강연을 마친 이멜다 여사도 목소리가 쉬고 굉장히 피곤한 안색이어서 그녀에게도 인삼차가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잠시 후 ‘안 돼! 스승님은 수많은 중생들을 돌보시고 매일 쉬지도 못한 채 그토록 많은 일을 하시니 인삼은 스승님께 더 필요해’ 하는 마음에 조금 전의 생각을 떨쳐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스승님께서 갑자기 인삼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것도 제일 좋은 그 백삼을 말이다. 나는 너무나 놀라 서둘러 인삼을 가져다 드렸다. 스승님은 이멜다 여사에게 인삼을 주시며 그 인삼의 효험과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멜다 여사는 천진난만하게 기쁨의 미소를 띠었고 그러면서 처음 봤을 때의 피곤한 기색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했다. 스승님의 사랑은 진정으로 범상치 않아 순식간에 사람들의 활력을 되찾아 주신다!

이멜다 여사가 떠난 후 스승님은 좀 전에 내 생각이 꽤 괜찮은 것 같아 그 생각을 뽑아 쓰셨다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로써 스승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정말이지 스승님의 내면에 숨겨진 능력과 수행의 경지는 우리 범부의 두뇌로선 상상할 길이 없다!

이번 경험이 내 수행에 훌륭한 교훈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스승님께서 나의 엉망진창인 생각을 다 아실 거란 생각을 할 때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그 이후로 나는 수행에 박차를 가해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단속하고 내면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 노력하게 되었다. ♥



영혼의 고양

★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 ★ ★ <영어 + 20개 국어 자막> ★ ★ ★

★ ★ ★ 608 수행진보의 비결 ★ ★ ★

1997. 12. 24-27 미국 워싱턴 D.C 국제 선사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식

양로원 방문

(원문 영어)

2002년 5월 11일 토요일, 자카르타 센터 동수들은 자카르타 교외에 있는 한 양로원을 방문했다. 그곳에 있는 노인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은 동수들은 노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며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준비해 간 선물과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견본책자를 받은 노인들은 굉장히 기뻐하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더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중 한 노인은 견본책자의 표지를 가리키며 “이 아름다

운 여성은 누구냐?”고 묻기도 했다.

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하며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

포모사 신주 소식

지체장애우에게 관심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신주 센터는 어머니날 전날 ‘어머니의 사랑 나누기 - 지체장애자에게 관심을’이란 주제로 신주 시 성 요셉 특수교육 센터를 방문해 지체장애 형제자매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로 했다.

성 요셉 특수교육 센터는 2급 장애인 이상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신주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으로, 현재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에 이른데다 6세부터 15세까지의 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룽산에 새로운 교육 시설인 ‘아침햇살’을 짓고 기존에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지체장애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02년 5월 9일 아침, 동수들은 많은 음식과 장난감, 약속한 기부금을 가지고 성 요셉 센터를 방문했다.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은 동수들은 먼저 성 요셉 센터에 대한 비디오를 보며 이곳의 운영 체계와 교육 방법에 대해 소개받고, 이후 센터의 내부 시설 및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수업 모습을 참관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해 주자 센터는 온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났다. 우리의 사랑



의 활동들이 지역 주민들의 자비심을 밝히는 모범이 되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

포모사 타이난 소식

영성과 건강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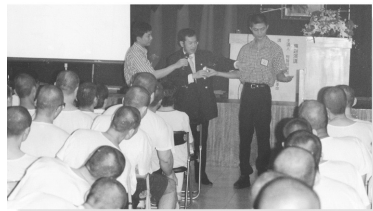
2002년 4월 25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다시 한 번 타이난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성과 건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파동 에너지와 건강 혁명’이었는데, 동수인 메이 박사가 강연을 맡았다.

메이 사형은 영양에 관한 최신 정보와 더불어 자신의 실제 경험도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 메이 사형은 전에 암에 걸렸지만 가장 바른 식생활인 채식을 함으로써 이를 극복했다고 얘기했다. 또 음식과 건강, 영성의 상관 관계에 대해선 슬라이드를 통해 간결하고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메이 사형의 재미있고 유머스러운 강연은 재소자들의 마음을 끌어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습관과 사고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전달했다. ♥



타이난 교도소 교화와 황 과장이 세미나에 앞서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을 환영하며 재소자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 높이 평가하다.



메이 사형이 손의 파동 에너지를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자 재소자들이 눈과 귀를 모아 설명을 듣고 있다.

표1: 2002년 3월과 4월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지 역	날 짜	활 동 내 역	금 액	부 록
타오웬	2002. 3. 14.	타오웬 교정원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문예 레크레이션 활동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2. 3. 21.	룽산 중학교 야간 조명시설 지원 (3/9-6/8)	30,000	A
까오슝	2002. 3. 27.	까오슝 소년 감호소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3. 27.	타이난 망터 개방교도소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3. 2.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신주	2002. 3. 31.	신주 적십자 지부 초청, 기초 응급처치법 강습회 개최 및 적십자사에 발전기금 전달	10,000	B
타이난	2002. 4. 25.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고양 세미나 및 건강 세미나 (동수 지원)	0	
총 계			NT\$40,000	

표2: 2002년 3월과 4월 포모사 내 빈곤가정 돕기 지출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2002년 3월		2002년 4월		
장소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부록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8	21,000	8	18,000	2
타오웬	1	2,000	1	2,000	3
신주	2	6,000	2	6,000	4
타이쑹	8	26,000	8	26,000	5
난도우	6	23,000	6	23,000	6
지아이	3	8,000	3	8,000	7
타이난	1	4,000	1	4,000	8
까오핑	4	12,000	4	12,000	9
타이퉁	2	6,000	3	8,000	10
소계	36	NT\$110,000	37	NT\$109,000	
총계				NT\$ 219,000	

표1, 표2에서 보이듯이 2002년 3월과 4월 포모사 내 각종 자선활동 지출액은 총 NT 259,000(미화 약 7,400달러)에 달한다.

收 據

茲收到中華民國禪定學會 夜間點燈認養金 壹萬零貳百元正

帳號 14273-1 支票號碼 DC5171141 無誤

收款人: 吳品品

日期: 91.3.21

中華民國 91 年 3 月 21 日

台北市立龍山國民中學教款正式收據 No. 532

繳款機關 中華民國禪定學會 公文字號

繳款人 夜間點燈認養金

金額 新臺幣 壹萬零貳百元正

主辦會計人員 何碧燕 單位主管 陳金定 主辦出納人 林其助

中華民國 91 年 3 月 21 日

文由 C2214×162mm TEL:2764281

中華民國紅十字會台灣省新竹縣支會

收 據

中華民國 91 年 4 月 2 日

繳款單位 中華民國禪定學會

金額 新臺幣 一萬 捌 仟 元 正

附 記

會長 總幹事 林其助

89. 6. 1,000 份

中華民國紅十字會台灣省新竹縣支會

收 據

中華民國 91 年 4 月 2 日

繳款單位 中華民國禪定學會

金額 新臺幣 一萬 捌 仟 元 正

附 記

會長 總幹事 林其助

89. 6. 1,000 份



뉴욕 소방서 911 순직자 가족이 보내 온 편지

원문 영어

친애하는 청하이 무상사께

당신의 사려 깊은 선물에 제 아기 패트릭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oys R US 상품권은 정말로 멋진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패트릭이 자라면, 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 가슴 뭉클한 얘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패트릭의 아버지 또한 감사할 겁니다.

아이린 리온스 드림



주: 뉴욕 소방서 브룩클린 252분대 분대장이었던 패트릭 리온스는 2001년 9월 11일에 순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10월 7일 태어난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기리는 뜻에서 패트릭이란 이름을 얻었다. 관련 기사 및 영수증은 뉴스잡지 127호와 129호를 참조 바람.



청하이무상사 국제협회는 미국 전국 도서관에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 자선 콘서트 전집을 무상 기증해 많은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216페이지에 달하는 이 음악 전집 속에 담긴 청하이 무상사의 아름다운 시와 화려한 컬러 화보, 피아노 악보, 그리고 콘서트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의 악력과 평론들을 통해 독자들은 1999년 동 제목으로 성황리에 열린 음악회의 매력과 감동을 다시 한 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과 시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진귀한 책을 나누기 위해 지난 수개월 간 미국 내 공립 및 사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 수백 곳의 도서관에 이 책을 기증하여 이제 미국 내 각 도서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책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담긴 청하이 무상사의 시적 예술성은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전해 줄 것이다.

다음은 그 중 답신을 보내 온 일부 대학 및 공립 도서관들의 명단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분교, 와이오밍 대학교, 보울더 콜로라도 대학교,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켄트 주립대학교, 미주리 중부 주립대학교, 노스 센트럴 대학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공공도서관.

다음은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의 감사 편지다. (원문 영어)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

2002년 1월 16일

캐서린 허드슨 귀하
사랑의 바다 엔터테인먼트

주소: 122-A East Foothill Boulevard #306 Arcadia, CA 91006-2505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 1권을 기증해 주신 데 대해 본인과 도서관장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서관의 도서 소장 발전 정책에 합당한 도서와 원고, 기록 등 모든 자료들을 기증해 주시는 모든 분께 저희 도서관과 직원, 학생들은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교육 및 연구 지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선물에 대해 일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 일자: 2002년 1월 16일

영수증 번호: 1213

스탠포드 이사회

도서관 기증품 관리원 사론 프로파스

THE STANFORD UNIVERSITY LIBRARIES
Stanford, California 94305-5084

Receipt
January 16, 2002

Kathryn Hudson
Ocean of Love Entertainment
122-A East Foothill Boulevard #306
Arcadia, CA 91006-2505

The Director of Library Collections and I gratefully acknowledge your gift of:

One (1) book - One World...of peace through music

The Libraries and the faculty and students they serve greatly appreciate gifts of books, manuscripts, recordings, and other materials that fit within the scope of our collections as defined by ou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uch gifts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ur ability to support teaching and research.

No goods or services were provided in exchange for this gift.
Date of Gift: January 16, 2002
Receipt No.: 1213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haron Proppas
Gift Librarian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9-865026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mchinghai@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s@meloo.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s@meloo.com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br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formax@ifxbrasil.com.br
★ 칠레		

라 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center@sinfim.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Ms. Maritza E.R. de Leone	507-236-7495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송시온	센터	595-21-662895 paraguay_asuncion_10@yahoo.com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54-232682 cusco 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p@bonus.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SumaJim@aol.com	
킹스턴 런던	Mr. Quang Thanh Le 센터	1-613-384-3295 1-519-438-3702 uniself@yahoo.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James_Le@adaptec.com
몬트리올	센터 Ms. Euchariste Pierre	1-514-277-4655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콜로라도 : 플로리다 : *케이프 코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Ms.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77@aol.com
오타와	Mr. Hung The Nguyen Mr. & Mrs. Nai-Chi Hsu Mr. Armand Laplante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1-450-647-4871 613-740-1017 er574@freenet.carleton.ca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토론토	센터 Ms. Diep Hoa Mr. & Mrs. Lenh Van Pham	1-416-503-0515 1-905-897-0650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조지아 : 하와이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bellsouth.net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밴쿠버	연락인 사무실 Ms. Li-Hwa Liao	torontocontact@yahoo.ca 1-604-541-1530 jsung99@shaw.ca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oceanoflove@prismnet.bc.ca	DorothySakata@aol.com	
★ 미국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애리조나 :	센터 Mr. & Mrs. Kenny Ngo	1-623-581-0725 1-602-264-3480 kennynngoaz@hotmail.com.	Mr. & Mrs. Sang-Yoon Lee	1-773-261-4033 ilovesuma@yahoo.com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j@arkansas.net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캘리포니아 :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Mr. & Mrs. Tsung-Liang Lin	1-909-674-7814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메사추세츠 :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샌디에이고	센터 Mr. & Mrs. Tran Van Luu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s. Gan Mai-Ky	1-508-791-7316
*샌프란시스코	센터 Mr. & Mrs. Khoa Dang Luong Mr. & Mrs. Dan Hoang	1-619-475-9891 KHOALUONG@aol.com 1-415-753-2922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bce77@bigplanet.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미시간 :	센터 1-248-370-2924 smmicenter@yahoo.com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Mr. Jim Su	1-408-253-8516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lps.org
			네바다 :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anhhlly@hotmail.com	
		c_newjersey@yahoo.com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Mr. & Mrs. Nghiem The Trung	1-856-667-3829		davidkyoung@hotmail.com	
		albert_nghiem@hotmail.com	워싱턴 :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JohnChou@ymusa.com		benptran@aol.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822-1560		Mr. Edward Tan	1-206-228-8988
		anawarskas@hotmail.com		edtan@usa.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dong@phys.columbia.edu		sumaemc@yahoo.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 푸에르토리코		
		success@coachdebra.com	카리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노스캐롤라이나 :				disnalda@caribe.net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shantiragyi@hotmail.com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v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아시아***		
		LTRAN2292@aol.com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오리건 :				armenhovhannisyan@hotmail.com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 포모사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orcenter@hotmail.com		smchtpe@ms33.hinet.net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Mr. & Mrs. Loh, Shih-Hurng	886-2-23756784
		youping320@yahoo.com		shloh@ndmctsg.hk.edu.tw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DiepAshleyPa@AOL.com		Mr. Chu, Chen Pei	886-37-724726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텍사스 :			★ 홍콩	센터	852-27495534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jdawu@yahoo.com		lovequanyin@hotmail.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 인도		
		tranduongdean@yahoo.com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trust_god@rediffmail.com	
		DallasCenter@yahoo.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Mr. Tim Mecha	1-972-395-0225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881
		mechat@email.msn.com		yadari@zahav.net.il	
	Mr. Weidong Duan	1-972-517-5807	★ 인도네시아		
		water96@yahoo.com	발리	센터	62-361-231-040
	Mr. Jimmy Nguyen	1-972-206-2042		smch_bali@yahoo.com	
		DallasCenter@hotmail.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smch-jkt@dnnet.net.id	
		cadamson@houston.rr.com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Ms. Lie Ik Chin	62-21-6510218
		DNguyen376@aol.com		finance1@ueii.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robert.yuan@hp.com		hai@cbn.net.id	
*샌 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lethong@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harry_l@sby.dnet.net.id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supreme2@tm.net.my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칼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yudi_wartono@telkom.net			klsmch@tm.net.my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klgcp@hotmail.com
		t.adianingtyas@eudora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 일본					pgsmch@pd.jaring.my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truelove@nth.biglobe.ne.jp			gym99@hotmail.com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 몽골		
		genesis@mb.infobears.ne.jp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zbadnaa@yahoo.com
		cal13840@pop07.odn.ne.jp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y-plus@f6.dion.ne.jp	★ 네팔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unitel.co.kr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Mr. Ajay Shrestha	977-1-473558
		houmri1@kornet.net			ajaystha@hotmail.com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포카라	센터	977-61-28455
		quanyim@unitel.co.kr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유태인	02-795-3927		Mr. Bishnu Neupane	977-61-21201
	이지자	02-599-1701			neupanebishnu@hotmail.com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Mr. Shiva Bastola	977-61-28255
		chinghaibusan@hanmail.net			pokharacenter@hotmail.com
	송호준	051-957-4552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황상원	051-805-728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이원석	051-894-6645			manilach@hotmail.com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shc5824@hanmail.net			chinghai@singnet.com.sg
	신현창	063-254-5824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 스리랑카		
	이재문	032-244-1250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70927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jean@sol.lk
		chinghaidaegu@hanmail.net	★ 태국		
	김익현	053-633-3346	방콕	센터	662-674-2694
	한선희	053-767-5338			bkk_c@hotmail.com
	차재현	053-856-3849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edasnlad@samsorn.stou.ac.th
	김수동	042-254-7309		Mr. Wu Peir Yuan	66-1-8248294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조명대	062-394-6552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387126
		enlightenment@hanmir.com	핫아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콘캔	센터	66-43-261878
	김삼태	054-821-3043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 유럽 ***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 말레이시아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heaven.bud@mail.matav.hu
		sound@gmx.at		Mr. Lux Tamas	36-309-611994
★ 벨기에				Ms. Dora Seres	36-1379-1924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148	지울	Mr. Lehel Csaba	36-96-456-452
		hugo_berton@hotmail.com			clehel@freemail.hu
★ 불가리아			★ 아일랜드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oldruslan@yahoo.com			bernardleech@unison.ie
플로브디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 노르웨이		
		chinghaiplovdiv@mail.bg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 체코					norwayqy@online.no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 폴란드		
		prague-center@chinghai.cz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Mrs. Marcela Gerlov	42-0-608-265-305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chinghai@chinghai.cz			quanyin_pl@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zeljko@mindless.com			czakra@interia.pl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 포르투갈		
★ 핀란드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21-920-4118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lisbon_center@hotmail.com
		hoanghanh@jippii.fi		Mrs. Deborah e dos Santos	351-0-96-618-7249
	Ms. Anne Nystrom	358-9-793902			quanyindaugther@yahoo.co.uk
		anne.nystrom@surfeu.fi	★ 러시아		
★ 프랑스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파리	센터	33-1-4300-6282			boulgakov@tri-el.ru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 슬로베니아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dbk@siol.net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 스페인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 독일				Ms. Lidia Kong	34-91-7756670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berlincenter@hotmail.com	발렌시아	Ms. X.C. Wang & Ms. X.C. Yang	34-96-3336208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Mr. Yu Xi-Qi	34-96-3726401
		49-174-5265242			valenciachinghai@yahoo.es
		ngoc-thao.nguyen@gmx.de	★ 스웨덴		
		dusseldorfcenter@hotmail.com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ng.nguyen@spray.se
		HamburgCenter@gmx.de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widlund@hem.utfors.se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ChingHai@aol.com			wu.john@telia.com
★ 그리스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mats.gigard@telia.com
		Razahidah@hotmail.com	★ 스위스		
★ 네덜란드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fengli@ilo.org
		Vothuong5@cs.com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 영국		
		m.mannaart@planet.nl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4989
★ 헝가리					l.wellers@ntlworld.com

런던	센터	44-208-3742743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pnl@matters19.freemove.co.uk		Mrs. Rosemary Nagtegaal	61-3-9307-6982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Mr. Pham Van Bon	61-3-9470-4573
		stmchwo@hotmail.com	퍼스	Mr. Alan Khor	61-3-9857-4239
★ 스코틀랜드				센터	61-8-9242-1189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lillig@btinternet.com			daveb@iinet.net.au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오세아니아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호주			★ 뉴질랜드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오클랜드	Mr. Anton Toia	649-419-4470
		leonadelaide@hotmail.com			nzanton@yahoo.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hotmail.com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takahide@extra.co.nz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Mrs. Chang-Wu Wong	649-534-0986
		ctieng@telstra.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chaomim@hotmail.com
바이런 베이/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647-858-3355
		rayandjulie@linknet.com.au			hamnzcont@yahoo.co.nz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mcanbra@cyberone.com.au			shale@ihug.co.nz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타우란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src@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unitel.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기억

- 불멸의 시 모음 -

송 완 사저/ 포모사 타이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열정을 겪고 난 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걱정과 후회, 감동, 그리움, 혹은 깊은 상처를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산다. 또 사랑이라는 시험에 부딪히면 형언할 길 없는 기쁨, 감정의 대립, 말다툼, 낭만적인 기대감과 상대방의 이해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 등이 수시로 교차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모순적인 마음의 성장 과정과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스승님의 시집인 『잃어버린 기억』에서는 아주 솔직하고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집은 스승님의 진정한 사랑의 구도 여정을 구성하는 진지하고 솔직한 일부분이기도 하다.

간결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시구마다 처음엔 누구나 그렇듯이 수많은 배우의 과정을 거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스승님의 발자국들이 여정 별로 아로새겨져 있다. ‘당신을 사랑한 이래로(Since I’ve Loved You)’에는 사랑에 대한 우수가, ‘만약(If)’과 ‘만남, 그 전후(Before and After I Met You)’ 등의 시에는 사랑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으며, ‘오늘 아침 당신의 입맞춤에(When You Kissed Me This Morning)’, ‘내 마음의 별(The Star Of My Heart)’, ‘만남, 그 전후(Before and After I Met You)’ 등에서는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또 ‘거기 없다면(If Only There Isn’t)’, ‘슬픈 사랑(Melody Blue)’에는 사랑에 빠진 연인의 기다림과 애달픔이 담겨 있다.

‘이별은 쉽지 않더라(It’s not Easy to Go)’와 ‘안녕이라는 말 대신(Instead of Saying Good-bye)’, ‘모르겠어요(I Don’t Know)’, ‘믿을 수 없어요(Je Ne Crois Pas!...)’ 같은 시는 이별의 쓰라린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들에서는 이별 전후로 겪게 되는 감

정의 대립과 무기력함을 절절히 토로하면서 또한 그것을 세속적인 열정을 넘어서는 숭고한 사랑으로 끌어올려 보다 심오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진실한 감정들이 시어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스승님의 내면을 약간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다.

세속의 생활과 욕망의 대립 또한 ‘어찌해야 할까요?(What Shall I Do?)’, ‘내 인생에 당신이 없었다면(If There Wasn’t You in Life)’ 등의 시에 묘사되어 있으며, 연인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은 ‘이젤론의 겨울밤(Winter Night in Iserlohn)’, ‘주말 상념(Weekend Thoughts)’, ‘당신의 풀오버(Your Pullover)’ 등의 시에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옛 도시, 옛 사랑(Old Town, Past Love!)’, ‘그땐 너무 늦으리(It May Be Too Late Then...)’, ‘끝(Final)’ 등에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음을 느낀 스승님의 평온함과 안도감이 표현되어 있다. 이 모든 시들을 통해 독자는 스승님이 인도하는 내면의 영혼과 외면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례를 거치게 된다. 또 스승님은 우리와 이미 하나가 되어 세상의 무상함을 보여 줌으로써 중생들의 영혼도 승화시킨다.

수행자는 감정이 없으며 삶의 부침(浮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누가 말했는가? 깨달은 스승께서 지난날의 감정 세계와 작은 추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려 하시니 이 얼마나 큰 복인가! 스승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진실한 일면을 깨닫고, 수행자라 해서 결코 무감각한 목석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 모두에게 항상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6월의 미풍 속에

야광/ 포모사 동수 (원문 중국어)

6월의 미풍 속에
하늘을 우러러 신을 바라본다
몽게몽게 피어 오르는 수채화 물감은
파도 속에 넘실거리는 백룡을 그려내고
질푸른 바다, 눈꽃 같은 물결
은은히 온 누리를 비추는 태양
붉은 오렌지 빛이 묘하게도 아름답구나...

그분을 생각한다
영감 어린 붓질로 그림을 그리고
낭만으로 가득한 시를 짓고
돌과 부채에 오색찬란한 색을 입히고
한 손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다른 한 손으로는 무지개보다 고운 옷을 짓고
황금과 보석을 소재로
몸에 걸칠 지혜의 상장을 만드니,
그 놀라운 재능, 그 놀라운 품채
천상의 것이로다!

창작하신 곡조와 가사, 너무나 아름다워
신의 노랫소리, 숭고한 사랑의 선율
6월의 미풍 따라 드높이 울려 퍼지네





무상예술

천의(天衣) 여름 시리즈

신(新) 낭만주의 린넨 디자인

특별한 감촉으로 흡수성이 좋고 시원하며 방부, 항균의 특성을 지닌 린넨은 이로 인해 ‘직물의 여왕’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SM 천의 팀은 새로운 디자인의 린넨 여름 컬렉션을 선보였다. 통기성이 좋고 시원하며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운 이 직물은 몸에 걸치는 ‘자연 에어컨’이다. 흡수성과 방향성이 좋은 린넨 재질은 덥고 습한 곳에서도 땀 냄새에 대한 염려를 잊게 해준다.

첫 번째 린넨 천의 시리즈는 특히 여름에 시원하고 편안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여성복 컬렉션이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이 스타일은 출퇴근이나 외출용으로도 잘 어울린다.



1. 7부 소매 린넨 블라우스 : 7부 소매와 허리선이 매력적이고 발랄한 느낌을 준다. 밑단에는 흰색 바탕에 물빛과 파스텔 보라의 우아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2. 크루 넥 민소매 티셔츠 : 시원한 이 셔츠는 가슴 부위에 물빛 꽃무늬가 있는데, 같은 물빛 블라우스와 함께 입으면 완벽한 통일감을 이룬다.

3. 크루 넥, 반소매 짧은 티셔츠 : 가슴 절개선을 잘 사용하면 아랫단 트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몸에 딱 맞는 재단으로 날씬해 보인다. 7가지 색상 선택 가능.

4. 민소매 짧은 티셔츠 : 위 셔츠와 디자인은 같지만 민소매라서 더욱 시원하다. 5가지 색상 선택 가능.

5. 린넨 민소매 티셔츠 + 크루 넥 긴소매 재킷 : 민소매 티셔츠는 길이가 길고 허리선이 들어간 조끼 스타일. 양쪽 트임과 등 쪽이 브이 넥으로 처리되었으며, 같은 색상의 긴소매 재킷과 한 벌로 입을 수 있다. 파랑과 오렌지 2가지 색상이 있다. 크루 넥 긴소매 재킷은 일자형으로 밑부분에 주머니가 달렸으며 단추 없이 심플하고 우아하다.



6. 단아한 통스커트 : 조절 가능한 고무 허리 벨트와 세심한 디자인으로 활동하기 좋고 편안하다. 양쪽 트임과 아랫단에 수놓아진 데이지 무늬로 한층 더 화사한 분위기 연출.

7. 좁은 통마지 : 다리 폭이 좁게 디자인되어 깔끔하고 단정해 보인다. 복부가 알맞게 포개어진 스타일이 복부 라인을 커버해 준다. 허리 벨트 일부가 고무로 되어 있어 입기 편리하다.

8. 통바지 :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 연출.
바지 밑단의 트임이 한층 우아한 멋을 더한다.
허리 중 일부가 고무 밴드로 되어 있어 활동하기
에 편하다.

